

# 觀光釜山

Busan Tourism News

Vol. 15  
2012. October

## 영화의전당

부산시는 2012부산다운 건축상 대상으로 '영화의전당'을 선정했다. 영화의 전당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랜드마크이자 문화적 심터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釜山廣域市觀光協會  
BUSAN TOURISM ASSOCIATION  
<http://www.bta.or.kr>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의 관광도시 네트워크  
TPO 회원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한국 인동, 부산, 부산 중구, 부여, 창원, 춘천, 대구, 대전, 동해, 강릉, 거제, 김해, 광주, 광주, 하동, 익산, 인천, 제주, 전주, 남해, 포항, 속초, 삼남, 통영, 울산, 영주
- 중국 청두, 다롄, 광저우, 항저우, 상하이, 산둥, 상하이, 선양, 우저우, 웨이하이, 옌타이
- 일본 후쿠오카, 기고사미, 기타큐슈, 쿠아모토, 미야자키, 나가사키, 오이타, 오사카, 사세보, 시모노세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이포, 코타키나발루, 멜라카
- 베트남 다낭, 하이퐁, 하노이, 호치민
- 태국 방콕
- 필리핀 마닐라
- 타이완 기오슝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www.aptpo.org

수시모집 1차: 2012. 9. 3(월)~9.14(금)

# 내가 가고 싶은 길

## 2012

### 교육기부기관 선정

### 2년연속 교육역량우수대학 선정 (지원금액 42억3천2백만원 전국14위)

###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 A등급 선정



#### 2013학년도 개설학과

유아교육과, 아동복지교육과, 유아영어지도과, 아동미술보육과, 아동음악과, 아동스포츠과, 국제관광통역과, 항공운항과, 호텔경영과, 호텔커리어과, 웨딩이벤트과,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커피바리스타과, 호텔제과제빵과, 간호과(3년제), 안경광학과(3년제), 치위생과(3년제), 보건행정과, 병원전산관리과, 보건의료문헌정보과, 미용과, 이가저혜어비스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상담과, 사회복지재활과, 콜마케팅매니저과, 보석감정 & 디자인과, 음악과



부산여자대학교  
BUSAN WOMEN'S COLLEGE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영로 506(영정동)  
Tel. (051)852-0081-5, Fax. (051)867-4705  
입시안내 Tel. (051)850-3008-10, Fax. (051)850-3013  
사회교육원 http://sahobwc.ac.kr, Tel. (051)850-3107-8



## 부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www.busan.go.kr) 새 단장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부산관광 온라인 길잡이 역할 수행

부산시 문화관광홈페이지(www.busan.go.kr)가 새단장을 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부산시는 온라인에서 부산 관광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홈페이지의 웹 접근성과 호환성 개선 및 콘텐츠를 재정비하고 지난 달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전면 개편된 홈페이지는 최신 정보기술을 응용해 전국 공공기관문화관광 분야에서 가장 많은 4,500여개 이상의 콘텐츠를 최적화하는 등 국내·외 네티즌의 정보 서비스 요구 수준에 맞도록 제작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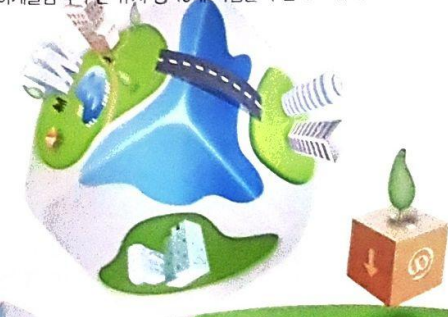
이에 따라 크루즈 투어 등 부산 관광 명품 10개를 선정해 메인화면에 표출하는 것을 비롯, 홈페이지 재설계를 통해 사용자 활용도가 높은 콘텐츠 위주로 재구성함으로써 웹 접근성 및 사용의 편리성을 높였다. 콘텐츠 현행화를 위해 홈페이지 담당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담당자(시) ↔ 구·군 ↔ 부산시관광협회 관광안내원(36명) ↔ 시민 문화관광도우미(리포터 53명)' 간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그리고 시티투어 6개 노선별 포토드라마를 제작 상영함으로써 부산의 주요 관광지를 온라인상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생생한 부산 관광 정보 전달을 위해 관광안내원이 추천하는 코스를 기사 형식으로 보여주는 신규 코너 개설,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부산 관광 공식 SNS 연계 및 각종 부산 관광 블로그를 수집하여 서비스 하는 등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부산 관광 온라인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와 관련된 모바일홈페이지, 앱, 터치면부산홈페이지, 관광안내정보시스템(키오스크)까지 9월 4일부터 새롭게 바뀐다.

부산시 문화관광홈페이지는 2008년 5월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그동안 대표적인 부산 관광 홍보 채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너무 많은 콘텐츠로 인해 화면 자료가 복잡하고 정보 찾기가 용이하지 않는 등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에 전면개편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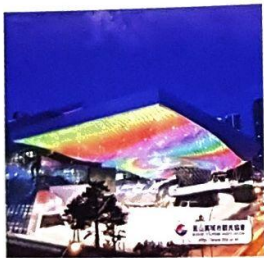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관광홈페이지 전면개편으로 보다 용이하고 빠르게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명품 부산 관광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민들께서도 멋있게 새단장한 부산시 문화관광홈페이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부산은 수도권에 대항한 남부권의 중추도시이자 현대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국제적 관문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 도시 조성, 부산항 재개발, 동북아 허브항만 육성, 부산시민공원 조성, 동부산 관광 컨벤션 클러스터 조성, 영화 영상 타운 조성, 문헌 금융단지 조성, 동남권 광역교통망 확충, 김해공항 거대 확장 이전, 하계올림픽 부산 유치 등 10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발행·편집인** 이근수  
**편집위원** 손해석, 이명규, 김종규, 이혜원, 김봉오  
**편집국장** 박성하  
**취재기자** 이효영 (김대연, 이민지 객원기자)  
**발행일** 2012년 10월 15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동라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_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569-2  
TEL. (051)463-3111, 463-3080 FAX. (051)463-0004  
**편집실** 부산사 동광동4가 18-8번지 2층  
TEL. (051)469-3563 FAX. (051)466-6062  
E-mail. bjbusan@hanmail.net  
**편집·디자인** 보문디자인 TEL. (051)469-3563  
http://www.bomoon.kr

- 05 문화관광 홈페이지 새단장
- 06 부산시의 문화, 관광, 교통
- 08 제39회 세계 관광의 날 유공 표창
- 09 내년 관광분야 예산 6.5% 확대
- 10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 12 제15회 부산국제관광전 성료
- 13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정원'
- 14 인도네시아 관광경제부장관 부산방문 간담회 개최
- 15 스토리텔링 활성화 자원 발굴 추진
- 16 동해남부산 철도 폐선부지 공원조성
- 17 감천 문화마을 관광명소로 부각
- 18 부산 야경명소 13경 선정
- 20 부산시 7개교량 야간경관사업추진 관광지원회
- 21 우체통으로 소통하는 이야기
- 22 제8회 부산불꽃축제
- 24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
- 25 벅스코오디토리움 1, 2 전시관
- 26 10월 축제 릴레이 부산이 즐겁다
- 27 외국인들이 즐겨찾는 '부산자갈치시장'
- 28釜山の 숙박시설
- 29 가을 부산거리축제
- 30 국내·외 여행 표준약관
- 32 관광칼럼 \_ 김봉오 본지편집장
- 33 한 편의 시(詩)
- 34 문화칼럼 \_ 박봉규 (사)부산관광포럼 회장
- 36 한·인도네시아 관광산업 \_ 김수일 주한인도네시아관광청 대표
- 38 강남스타일의 성공을 보면서 \_ 이명규 본지편집위원
- 39 가을속으로 떠나보자 \_ 김봉오 본지편집장
- 40 인물 포커스 \_ 장석준 (주)덕화무드 대표



표지 \_ 영희의정당



# 부산시의 문화 · 관광 · 교통

## 문화

부산시의 현재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국  
중요무형문화재 5점, 명승 2점이 있고, 지방문화재로서 유형문  
화재 80점, 기념물 46점, 무형문화재 13점, 민속자료 4점 등이  
있다. 박물관으로는 부산광역시립박물관과 부산대학교 · 동아대  
학교 · 경성대학교 · 동의대학교 · 부경대학교 · 한국해양대학  
교 · 신라대학교 등에 있다.

선사시대 문화재로는 구석기시대의 청사포 유적과 신석기시  
대의 동삼동 · 영선동 · 아지섬 · 압남동의 패총(貝塚)과 영선동  
패총에서 출토된 용기문토기(隆起紋土器 : 보물 제597호)가 있  
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으로는 노포동 · 반여동 · 온천동 등지의  
주거지와 감천동지석묘의 분묘, 유물로는 동모2점(銅矛二點 : 부  
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8 · 19호), 동파두(銅帕頭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0호) · 마제석검 등이 있다. 고분군으로는 복천동  
고분군(福泉洞古墳群 : 사적 제273호) · 연산동고분군(蓮山洞古  
墳群 :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2호) · 반여동고분군 · 오륜대고분  
군 · 두구동임석유적 · 서동포광묘 등이 있고, 유물로는 마두식  
각배(馬頭飾角杯 : 보물 제598호)가 있다. 삼국시대에 창건된 범  
어사(梵魚寺)는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3층석탑(보물  
제250호) · 석등(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6호) · 당간지주(幢  
竿支柱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5호) · 원효암동3층석탑(부  
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1호) · 원효암서3층석탑(부산광역시 유  
형문화재 제12호) 등의 유물이 있다.

그밖의 불교유물로는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 : 국보 제  
200호) · 영태2년명납석제호(永泰二年銘鐵石製釜 : 국보 제233  
호) · 의령보리사지금동여래입상(宜寧菩提寺址金銅如來立像 :  
보물 제731호) 등이 있다. 고려시대 불교문화재로는 만덕사지(萬  
德寺址 :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3호) · 3층석탑 · 당간지주 · 고려  
5층석탑(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3호) · 범방동3층석탑(凡方  
洞 三層石塔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3호) · 사직동석곽묘(社  
稷洞石槨墓) 등이 있다. 조선시대의 건축물로는 동래부동헌(東萊  
府東軒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 다대포객사(多大浦客  
舍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호) · 망미루(望美樓 : 부산광역

시 유형문화재 제4호) · 독진대어문(獨鎭大門) : 부산광역시 유  
형문화재 제5호) · 동래향교(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6호) · 범  
어사대웅전(보물 제434호) 등이 있으며, 임진왜란의 선열 유적  
으로는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 공을 모신 충렬사(忠烈祠 : 부산  
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호), 송공단(宋公壇 :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11호), 부산첨사 정발 장군을 모신 정공단(鄭公壇 :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10호), 다대첨사 윤흥신 공을 모신 윤공단(尹公壇 : 부  
산광역시 기념물 제9호), 의용단 및 임진동래의총 등이 있다. 그  
밖에 중요문화재로는 개국원종공신록진(開國原從功臣錄進 : 국  
보 제69호) · 초충도수병(草蟲圖袖屏 : 보물 제595호) · 궁궐도  
(宮闈圖 : 보물 제596호) · 조대비사순창경진하도병(趙大妃四旬  
稱慶陳氏圖屏 : 보물 제732호) · 헌종가례도병(憲宗嘉禮圖屏 :  
보물 제733호) · 조서경무과급제왕지(趙瑞卿武科及第王旨 : 보  
물 제954호) · 쌍지승자총통(雙字勝字銃筒 : 보물 제599호) · 안  
중근의사유목(보물 제569-6호)이 있다. 산성으로는 금정산성(사  
적 제215호)를 비롯하여 동래읍성지 · 부산진지성(일명 子城臺,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7호) · 좌수영성지(부산광역시 기념물 제8  
호) · 동평현성지 · 범천중산성(凡川壘山城) 등이 있고, 응봉 · 구  
봉 · 황령산 · 제명봉 · 간비오산 · 천성연대 등의 봉수대가 있다.

무형문화재로는 동래들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 수영들  
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 대금산조(중요무형문화재 제45  
호) · 좌수영어방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62호) · 동해안별신굿  
(중요무형문화재 제82의 가호)과 함께 수영농칭놀이(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 · 동래하춤(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3호) ·  
동래지신밧기(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호) · 총원시계항(부산  
광역시 무형문화재 제5호) · 부산농악(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6호) · 다대포후리소리(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7호) · 가야금  
산조(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등이 각각 지정되어 보존되  
고 있다. 천연기념물로는 범어사등나무군생지(천연기념물 제176  
호) · 낙동강하류철쇄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등 8점이 지정  
되어 있다.

전해오는 민속놀이는 율놀이 · 연날리기 · 연등놀이 등의 성인  
놀이와 아동놀이가 있으며, 민요로는 〈모찌기노래〉 · 〈논매는노

래〉 등의 노동요와 〈지신밧기〉 · 〈성주풀이〉 등의 의식요가 전해  
진다. 실화로는 〈범어사 창건 이야기〉, 성지곡 · 신신대에 대한  
문헌설화와 동래정씨 시조묘, 동래온천에 대한 구비설화 등 다수  
가 진한다.

부산시민회관을 비롯한 16개의 공연장과 30개의 전시실을 통  
해 연중 활발한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 총공공의  
부산포 해전승전일인 10월 5일을 부산시민의 날로 제정한 후 매  
년 각종 문화 · 체육 행사가 벌어져 시민의 축제일이 되고 있다.  
언론기관으로는 부산일보 · 국제신문 · 부산매일신문 등 3개 신  
문사와 한국방송공사(KBS) 부산방송본부, 부산문화방송, CBS  
부산방송, 주식회사 부산방송(PSB) 등이 있다. 체육시설로는 일  
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구덕경기장과 경기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직동에 건립한 부산종합운동장이 있으며, 그밖에 수영 요트 경  
기장, 영도 스타장, 영도 사격장 등이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22개소, 노인복지시설 49개  
소, 장애인복지시설 19개소, 여성복지시설 21개소 등을 포함하  
여 모두 115개소에 7,819명을 수용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의료  
시설로는 부산대학교 병원, 동아대학교 병원, 고신의료원, 메리  
놀 병원, 부산 백병원 등 종합병원 27개소, 병원 63개소, 의원  
2,095개소, 치과의원 1,003개소, 한의원 906개소, 조산소 12개  
소, 보건소 관련 의료기관 30개소가 있다.

## 관광

부산 용두산공원, 부산 중구 동래온천 및 해운대  
온천과 많은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수려한 해안,  
역사유적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경주권 · 한려수도권 · 지리  
산권 · 제주권 등 관광권역들을 점속하는 관광거점도시로서 그  
잠재력이 매우 풍부하다. 조선8경의 하나인 해운대는 온천과 함  
께 한국 최대의 해수욕장으로 약 40만㎡의 백사장과 송림이 조  
화를 이룬 해안승경지이다. 인근에는 조선비치 · 하이아트 · 파  
라다이스비치 등의 특급 호텔과 일반 호텔이 있어 관광객을 유치  
하고 있다. 그밖에 다대포와 물온대, 젊은이들의 명소가 된 광안  
리해수욕장 · 카페온 · 송정해수욕장 등이 있다. 태종대는 기암  
괴석과 울창한 송림이 있어 해금강을 연상하게 하며, 맑은 난지  
에는 향도부산의 상징인 오륙도와 대마도가 가까이 보인다. 동래

에는 동래온천과 금강공원이 있으며, 도도 부산의 대표적인 관  
광지이다. 부산시는 현재 인근 관광지를 문화 · 산업 관광자원이  
로 개발하고자 수영-송정 간 해변관광단지 및 낙동강 수상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 교통

21세기에 이르는 도시개발의 목표는 국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몇 가지로 설정되고 있다. 국제  
적으로는 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국제교역의 중심거점으로서의  
지위 확립과 함께 태평양지역의 관문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적으  
로는 수도권 집중을 분담할 대응 거점을 구축하고 기술혁신을 통  
한 지역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개발전략은 신시가지의  
개발을 통한 대규모 업무단지의 조성과 도시기능의 전문화를 유  
도하는 데 있다. 대도시로서의 교통난 · 용지난 · 재정난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한계를 극복하여 발전의 계기를 마련  
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따라 낙동강권 · 해안권 · 도심권 · 내륙권  
으로 구분하여 종합적 · 미래지향적인 권역별 개발계획을 추진  
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해상신도시 건설을 통해 계획적인 도심  
의 구축과 교통 등 숙원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의 투자를 통해 도  
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낙동강권에는  
신산업단지 · 신규제공항 · 주거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부산광  
역시의 최우선 과제인 교통시설의 확충은 해상신도시, 낙동강권  
개발과 연계한 2개의 도시 광역 순환도로망을 구축해 기존의 방  
시형 연결도로를 환상방사형 연결도로로 완벽히 계획이다. 지하  
철은 4개 노선과 1개의 결철선이 운행 중에 있으며 승승분담률  
40%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70%  
를 차지하고 있는 도심산지를 적극 활용하여 주거단지 및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산간도로망을 개설하여 현재의 도심 교  
통난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권 및 주변관광단지, 수  
영-송정간 해변관광단지, 금정산 주변지구, 낙동강수상공원의  
권역별 관광개발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적 관광명소로 개발할  
예정이며, 그밖에 상 · 하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의 투자를 통해  
해석한 도시질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부산시제공)



## 제39회 세계 관광의 날 유공 표창

관광협회 이근후 회장 대통령 포상 영예



매년 9월 27일은 세계의 관광인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기리는 관광의 날 기념일이다.

올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한 제39회 세계관광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9월 27일(목)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장관, 국회의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남상만 회장,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 주한 외국관광청 대표, 관광유관기관과 학계 대표, 그리고 관광사업자 등 전국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관광협회 이근후 회장은 관광산업진흥 유공자 정부 포상자로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근후 회장이 정부포상 공개검증을 받은 주요 공적 내용을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 ○ 투철한 애국심과 국가관 발휘

-재일동포 2세로 출생하여 일본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그 해인 1973년도에 영주 귀국하여 관광산업계 투신

### ○ 외자도입을 통한 관광호텔산업 발전에 기여

-외자 도입으로 1976년 12월에 신성산업(주) 피닉스호텔을 개관하였으며, 지난 36년동안 외래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에 크게 기여

### ○ 지역사회 발전과 관광활성화 도모

-부산시 관광·문화정책 자문기구 참여 활동

-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한일친선협회 부회장
- 부산영상위원회 이사 등

-국제 관광·문화정책 자문기구 참여 활동

- 부산상해오사카 관광협의회 활동
- 부산 후쿠오카 광역경제권협의회 위원 등

### ○ 관광협회장으로서 회원의 권익증진에 기여

-관광안내 기능(One Stop) 체계 정비

· 워킹가이드(자갈치시장, 남포동, 국제시장) 운영

· 외국인관광객 전용 정보검색실 설치 운영

-부산 관광홍보 매체지 「觀光釜山」 정기 발행

-부산국제관광전(BITF) 정기 개최

· 1990년도부터 매년 정기 국제관광전 개최 (매년 30여개국 230여 업체)

-부산관광대상(大賞)제 시행 운영

-2012 여수박람회 연계 남동순환 크루즈 사업 실시

### ○ 국제교류 증진

-한일간 관광교류(일본지역 순회 강연) 실시

· 가고시마현 관광연맹 초청 2회

· 카라즈 상공회의소 초청 1회

·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초청 1회

-국제 자매협회 체결 확대

· 중국(심양시여행협회), 대만(고용시관광협회)

○ 이 외에도 부산청년회의소 지구회장 역임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가 있다.

## 내년 관광분야 예산 6.5% 확대

수요태세 개선과 광역 관광자원 개발에 역점

내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예산안이 확정 발표됐다. 전년 대비 6.44% 늘어난 3조 9590억 원으로 순수 관광부문은 2012년 9829억 원에서 1조 466억 원으로 6.5% 늘어났다.

큰 맥락에서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 관광자원 개발과 외래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맞아 수요태세 개선에 역점을 뒀다.

또한 한류 예산 총3190억 원을 확보하고 이중 관광분야 고공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86억 원 -90억 원), MICE 산업 육성(166억 원 - 215억 원) 등을 통해 한류관광을 증진키로 했다.

문화부는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관광산업 용자를 대폭 확대해 2462억 원에서 2800억 원으로 15.2% 증가시켰다.

아울러 1800실의 관광숙박시설을 신규로 확충하고, 1700실을 개·보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광수요태세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관광사업자에게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을 시중은행보다 2~3% 낮은 수준으로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관광산업 융자사업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관광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관광사업자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도록 해 관광 인프라확충 및 관광수요태세 개선, 관광산업의 경쟁력 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ICE 산업(166억 원 -215억 원), 산업관광(14억 원) 등 융·복합형 관광테마를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MICE 산업은 지난 2008년부터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돼 왔으며 이에 따라 국제회의의 개최 건수가 2008년 세계 12위에서 지난해에는 세계 6위를 차지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기록해 왔다.

2013년에는 MICE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인식하에 MICE산업 유치 및 개최 확대를 위해 국제박람회 참가 등을 통

해 홍보에 주력하며 한국이 최적의 MICE 개최국가라는 점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동시에 국제기구 대상 로드쇼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국제회의 유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관광분야 예산편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역경제 발전 및 국민관광 수요 충족을 위해 광역 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3대 문화권 생태관광 기반 조성 사업(917억 원 -1117억 원), 동해안(87억 원 -126억 원), 서해안(82억 원 -125억 원), 남해안(198억 원 -228억 원) 광역 관광 개발사업과 지리산권 개발사업(96억 원 -139억 원)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새롭게 2억 원이 편성된 국민 국외여행 공적서비스부담도 눈여겨 볼 만하다.

해외여행 1300만 명 시대가 도래해 해외여행 안전체계의 구축과 여행 정보의 체계적 제공, 건전한 국외여행 풍토 조성 등 해외여행 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외여행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된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여행업계의 저가 과당경쟁으로 인한 여행 상품 정보의 왜곡, 기본 안전정보 제공 불이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행상품 정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언버벌(Nonverbal) 그래픽 의사소통 수단 긴급터치패미파를 제공해 국민 해외여행의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외여행자들에 대한 공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한국의 국제관광 시장에서의 위상 확대와 국민의 권익보호, 안전 제고에 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문별 편성현황

구분	12년재정(A)(비중)	13년재정(안)	증감액(B-A)%	비고
관광부문	9829(26.4)	10466(26.4)	637(6.5)	12년 완료 192억
문화관광일반	2506(6.7)	2566(6.5)	50(2.0)	문예위 이전(142억감소), 인건비, 기본경비 등





부산국제영화제를 빛낸 스타들(부산국제영화제 제공) ▲



##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 75개국 304편

BIFF 전용관인 '영화의 전당' 시대 본격화 됐다.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지난 13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BIFF는 역대 최대 22만 관객이 몰렸다.

BIFF 최고 신임감독상은 영화 '36'의 나희훈 탐공라타니티 감독과 영화 '카약'의 마리암 나자피 감독에게 돌아갔다. 탐공라타니티 감독은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도 받았다. 클래식 포워드상은 영화 '꽃봉오리'를 만든 트레벡 이라스크 감독이 선정됐다. 최우수 다큐멘터리에 주는 비프메세나상은 '기억의 잔상'을 만든 타마라 스테파니안 감독과 '불안'을 연출한 민환기 감독이 받았다. 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은 영화 '지슬'을 만든 오벌 감독에게 돌아갔다. 오벌 감독은 시민평론가상과 CGV무비감독플라주상, 한국영화감독조합의 감독상도 받아 4관왕이 됐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의 감독상은 '러시아 소설'을 만든 신연식 감독도 받았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의 남자배우상은 '영화 1999, 면회'에서 열연한 심희섭, 김창환, 안재홍이, 여자배우상은 '공정사회'의 장영남이 받았다. 초청작은 75개국 304편으로 지난해보다 5개국이 늘었고, 초청작은 3편이 줄었다.

BIFF 조직위는 개척 일수 확대와 연계해 야외 상영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네마테크와 연계한 이벤트를 마련해 영화제 기간동안 BIFF에서 만끽할 수 있는 축제를 연출했다.

BIFF 전용관인 영화의 전당 시대도 본격화됐다. 올해부터 영화의 전당 인근에 들어선 소항뮤지컬센터가 BIFF 상영관으로 확정되면서 샌텀시티가 BIFF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더 커졌다. BIFF 조직위는 영화의 전당을 중심으로 한 샌텀시티 주변 공간의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 집중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져 보다 밀도있고 개선된 관객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 BIFF는 필름마켓 기능강화에도 적극 나섰다. 올 아시아필름마켓의 신설 프로그램인 'BOOK TO FILM'은 아시아의 출판산업과 영화산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콘텐츠마켓의 일종. '북 투 필름'은 원작 권리를 판매하려는 출판사와 이를 구매하려는 영화 프로듀서의 만남을 추천한다. BIFF 역사를 간직한 남포동은 추억의 영화공간으로 거듭났으며, 올해는 남포동 메가박스 부산극장에 상영관을 마련, 한국 영화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고전영화를 상영했고, 국내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국영화 '청춘의 심자극'을 뮤지컬 공연과 함께 상영했으며, 한국 최초의 뮤지컬 영화이자 부산이 배경인 '청춘쌍곡선'을 비롯해 1950-70년대까지 부산의 옛 모습을 엿볼 수 있는 4편의 고전영화를 상영하기도 했다.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콜드워'

하남식 부산시장은 "올해는 영화의 전당 시대안정화를 이루는 첫 해로, 품격있으면서도 활기 넘치고 화려하면서도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준비했다"며 "보다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초청하는데 정성을 쏟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BIFF상영작은 총 11개 부문 304편이다. 세계에서 처음 상영하는 월드프리미어가 93편, 자국 외 지역에서 첫선인 인터네셔널프리미어가 39편에 달했다.

## 개막작 '콜드워' & 폐막작 '텔레비전'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폐막작은 모두 해외 초청작이 선정됐다. 개막작 '콜드 워'는 홍콩의 신예감독 령록만과 씨니 렉이 공동연출한 '콜드 워'.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는 경찰조직 내에 범죄조직의 첩자가 있다는 설정에서 출발한다. 범죄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이지만, 두 젊은 감독은 진부한 소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펼쳐냈다. 감독의 시선은 상반된 두 조직의 긴장관계 그 너머를 응시한다. 내통자는 왜 범죄조직과 내통하는가?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콜드 워'의 령록만과 씨니 렉은 내부의 적을 밝혀나가는 과정을 시종 긴장감 있게 카메라에 담아낸다. 최종적으로 밝혀지는 내통자의 목적은 관객의 예측을 빚나간다. 두 감독은 관객의 기대를 저버리는 놀라운 반전 속에서 지금까지의 범죄영화와는 전혀 새로운 영화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

'텔레비전'은 방글라데시 영화다. 방글라데시 영화가 BIFF 폐막작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방글라데시에도 영화를 만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만큼 방글라데시 영화는 우리에게 낯설었던 것.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김지식 수석 프로그래머에 따르면 '텔레비전'은 일찌감치 지난 7월 BIFF 폐막작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모스타파 파루키와 부산국제영화제와의 인연은 지난

2009년 시작됐다. 그해 BIFF는 파루키의 세 번째 작품 '제3의 인생'을 발굴해 세계최초로 소개했다. 서툰 부분이 있지만 그의 재능을 높이 샀다는 것이 김지식 수석 프로그래머의 증언. 그리고 이듬해인 2010년 파루키의 신작 프로젝트 '텔레비전'을 APM에 초청했고, 올 초에 러프컷을 BIFF에 보내왔다. BIFF조직위는 바로 이 작품이 '물건'이라고 판단하고, 일찌감치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했다.

손혜식 편집위원



폐막작 '텔레비전'





## 제15회 부산국제관광전(BITF 2012)

### 세계 37개국에서 234개 기관, 업체가 총 430부스 규모로 참가 9만 여 명의 방문객 성황리 성료

세계 37개국, 해외 관광청 및 대사관, 국내 지자체 및 관광 유관 기관 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제 15회 부산관광전이 지난 달 11일 폐막했다.

올해로 15번째 맞는 부산국제관광전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세계 37개국에서 234개 기관/업체가 총 430부스 규모로 참가하며 9만 여 명의 일반시민들이 전시장을 방문했다.

또 참가국 및 관광 유관 기관의 새로운 관광 정보 및 여행상품, 최신의 여행 트렌드와 관광지식 등을 선보임과 동시에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여러 체험거리와 각국의 민속공연 등 이벤트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 관광청의 유치에 의한 부산시와 일본 제일의 여행사 JTB 규슈간의 MOU 체결식으로 부산 및 영남지역으로의 일본관광객 객 증가에 큰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활발한 관광 마케팅 자원 교류를 위한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

이번 관광전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 관광 유관 기관이 꾸미는 국내 홍보관, 세계 각국 대사관과 관광청 등이 참여하는 해외홍보관, 대형 여행사들이 국내외의 관광상품을 관광전 기간 동안 특별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여행상품판매관, 해외 10개국의 이색적인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세계음식페스티벌관 등으로 알차게 구성됐으며, 세계전통민

속공연, 부산관광홍보동영상 입상작 상영, 부산관광 사진전, 관광서비스 경진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기간 내내 관람객들의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차세대 관광인재 발굴을 위한 제4회 관광·MICE 산업 전문고 용박람회가 함께 열려 관광업계 취업을 원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취업 특강 및 상담, 실질적인 채용 면접 등 종합적인 관광업계 취업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전시장내 메인 무대에서는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 등 참가국들이 자랑하는 전통 민속공연과 전국지역 관광과 학생들의 '각태일 주주', '커피바리스타', '카지노 딜러'를 주제로 하는 관광서비스경진대회와 해외왕복항공권, 여행 상품권, 호텔숙박권, 해외 참가국의 기념품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있었다.

한편 관광산업의 동향 파악과 부산 및 인근 지역 인바운드 시장 활성화 위해 중국에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여행상품을 홍보 하는 해외 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Travel Man)와 바이어 및 해외 참가자를 위한 부산광역시 패밀리(Fam Tour)도 마련되어 제15회 부산 국제관광전은 더 많은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성황리에 폐막했다.

##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정원' 통해 부산 정체성 찾는다 내달 24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문화회관, 광안리 등지에서 열려



2012비엔날레가 지난달 22일부터 부산시립미술관, 문화회관, 광안리등지에서 열리고 있다.

'배움의 정원' 미술을 통해 부산, 예술을 배운다는 의미를 담았다.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측은 "배움"이지만 작가들과 부산 사람들과 소통, 협업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어서 결국 '소통과 참여'란 뜻에 가깝다"고 말했다. 조직위 측은 이 참여와 소통을 할 시민 330여 명을 '배움위원회'로 모집, 운영 중이다. 배움위원회는 ▲전시·디스플레이 ▲민주적 예술교육과 효과적 전시정보 전달 ▲시민과의 효율적 소통을 위한 홍보물 제작 ▲부산의 문화·역사·지역 정체성 모색 등 10여개의 소모임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로저 M. 뷔르겐(50) 2012 부산 비엔날레 전시감독은 "부산 사람들이 부산이라는 공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가 이번 비엔날레의 화두"라며 "작가와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올해 비엔날레는 ▲본전시(부산시립미술관) ▲특별전(부산지역사, 부산문화회관, 광안리 미술관) ▲갤러리페스티발(19개 갤러리 참가) ▲시민들과의 공감을 위한 이번 스페이(패널 디스커션, 아티스트 온도크, 큐레이터 토크, 아트 에듀케이터 토크, 토크 콘서트, 플레이

워드 비엔날레) 등으로 이뤄진다. 본전시는 19개국 작가 42명의 작품 200여점 전시 외에 강연, 관람객들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전시 정보·내용을 직접 찾아보는 디지털 투어, 장애인·근로자·학생 등을 초청해 전시회를 관람토록 하고 대화를 나누는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별전은 '젊은 피 큐레이터'의 실험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이두식 집행위원장은 "현대 미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비엔날레가 세계 어느 곳이든 비슷비슷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이런 트렌드 속에 '부산비엔날레'만의 독특함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전 큐레이터 9명을 모두 20대 후반~30대 초반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젊은 피'들이 참다, 급변 등을 키워드로 하는 요즘의 본질을 가장 잘 포착할 것인 개산도 걸려 있다. '부산전 역사'를 전시장으로 선정된 것은 부산의 근·현대에 대한 해석서, 재조명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플레이 워드 비엔날레(Play with biennale)'는 부산시립미술관 야외 공원과 광안리해수욕장 등에서 부산을 상징하는 컨테이너를 활용 해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연 등을 펼치는 행사다. 올해 '갤러리페스티발'은 시민과 함께 전시 주제를 정하거나 작품을 만드는 소통형으로 진행된다.

이효영 기자



# 인도네시아 '마리엘카' 관광경제부장관 주최 오찬회 개최

## 인도네시아-부산 지역간 관광교류 협력 증진 기대



부산시 관광협회  
류연국 수석부회장

인도네시아 마리엘카 관광경제부장관이 지난달 23일 인도네시아-부산지역간 관광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날 북구 화명동 부산인도네시아 센터 회담장에는 마리엘카 장관을 비롯, 리콜라스 담판대사, 김수일 주한 인도네시아 관광청대표, 박태완 센터장, 그리고 김도음 국회의원, 황재관 북구청장, 이갑준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연국 부산시 관광협회 수석부회장 등 여행업계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마리엘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부산은 앞으로 상호우호증진을 위해 만남의 장을 갖자고 제의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관광교류국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고 했다.

이어 류연국 관광협회 수석 부회장은 축사에서 "인도네시아와 부산지역간의 관광 교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오찬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관광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시작되고 마음과 감동을 이어주는 상호 교류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만큼 인도네시아-부산지역 관광교류에 네티워킹을 더한 마리엘카 관광경제부장관 총 강화를 나가고, 또 다양한 관광교류의 정보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고 했다.



인도네시아  
마리엘카 관광경제부장관

인도네시아는 1966년 한국과 영사관계를 수립, 71년 한국과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



인도네시아 전통춤 공연

인도네시아 수도는 자카르타이며 서쪽의 수마트라 섬에서 동쪽의 뉴기니 섬까지 약 5,100km, 남북으로는 약 1,600km에 걸쳐 펼쳐져 있다. 동쪽으로는 파푸아뉴기니와 아라푸라 해, 남쪽과 서쪽으로는 인도양, 북서쪽으로는 안다만 해, 북쪽으로는 말라카해협, 남중국해, 셀레베스해, 태평양 서부해역과 이웃한다.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면적 1,922,570㎢, 인구 3억1천만여명. 공식 이름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Republik Indonesia), 약 1만 3,670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의 섬나라다.



인도네시아춤 : 전통무용

천혜의 관광지 발리! 자바 섬 동쪽 1,6km 자점에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 지역이 자바 섬 중부산맥의 연장 부분인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고봉은 해발 3,142m 높이의 아궁 산 또는 발리 봉이라고 부르는 산이다. 현지에서 '세계의 배꼽'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이 산은 활화산으로 1963년 3월에 폭발해 1,5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이재민을 내기도 했다. 중부 산악지대 남쪽에는 주요저지대가 있다. 남동계절풍이 부는 시기인 5월에서 11월까지가 건기이다. 대부분 산지 열대우림인 식물상과 동물상은 자바 섬 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김봉오 bjbusan@daum.net

# 부산시, 스토리텔링 활성화 자원 발굴 추진

## 2014년부터 해마다 스토리텔링 페스티벌도 개최

부산시는 부산 불꽃축제, 광안대교, 간헐성 산부도로 등에대한 스토리텔링 히브드시로의 도약을 위한 '부산 스토리텔링 활성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시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스토리텔링 활성화 기반 조성 ▲스토리가 살아 있는 문화관광상품 개발 ▲스토리텔링 산업화 지원 ▲스토리텔링 홍보 마케팅 강화 등 4개의 분야 27개 과제를 추진한다.

부산은 개항과 근대화 물건, 전쟁의 상흔과 민주화의 영광이 도시 곳곳에 새겨져 있는 스토리의 산실이며,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 '친구', '해운대', '도둑들'의 흥행과 함께 드라마 촬영지로도 주목을 받으면서 새롭고 소중한 이야기 자원이 잇따라 축적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그동안 시장 각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 지던 스토리텔링 관련 사업을 스토리텔링 소스 발굴에서부터 홍보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체계화하고, 실현 가능하고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 보완했다.

● 스토리텔링 활성화 기반 조성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선 사업 추진을 전담할 조직을 2013년 신설하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부산의 스토리텔링 원형 자료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원천 스토리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게임 등 제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관광 안내판도 분야별 전문가, 문화관광해설사, 자문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의 자문과 심사를 거쳐 기존 시설안내 위주에서 스토리 위주의 내용으로 보완해 연차적으로 교체한다.

● 스토리가 살아 있는 문화관광상품 개발분야에서는 부산직할시

승기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부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을 제작하고, 2014년부터 매년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부산의 대표 스토리텔링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산부도로 간헐성 영화·드라마 촬영지, 광안대교 등에 대한 스토리텔링 자원 발굴과 관광 상품화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1954년 건립되어 우리나라 최초 도개식 연육교로 사랑받다가 철거된 영도다리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영도다리의 명성에 걸맞은 공공디자인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 스토리텔링 산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공모를 통한 스토리텔링 민간사업 지원과 스토리텔링 문화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스토리텔링 커뮤니티 활동 지원, 지역 스토리텔링 작가활동 지원, 전문 스토리텔러 양성, 이야기 할매·할매 활용 등 전문가·시민 등 민간의 활신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한다.

● 스토리텔링 홍보 마케팅 분야에서는 부산이야기 스마트콘텐 개발, 관광스토리텔링 북 발간, 부산이야기 체험 교실 운영, 부산발전 50년 역사 이야기 발간, 스토리텔링 온라인 사랑방 운영 등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산스토리 홍보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상징적인 인물·경관·장소·역사·문화·예술 등 잠재된 스토리텔링 소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들 자원화·콘텐츠화·사업화함으로써 부산이 명품 스토리 시티 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올해 부산항 입항 크루즈관광객 두배 이상 늘었다.

## 일본대지진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올해 크루즈선박을 타고 부산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1월~지난달 말 부산항에 입항한 크루즈 승객은 9만2천9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크루즈 승객(3만7천249명)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엔 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부산항에 입항하는 크루즈선박이 38척에 그쳤으나 올해는 상수기인 7~9월 50척이 입항하는 등 지난달 말까지 크루즈선박 66척이 부산항을 찾았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3만2천여명이 부산을 찾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크루즈 관광객(9천400여명)에 비해 3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중국인들은 최근 불거진 다오위다오(일본령 뱀가쿠열도) 영유권 분쟁으로 당초 계획했던 일본 입항을 취소하고 중국에서 바로 부산항에 입항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설명했다.

부산항만공사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연말까지 모두 135척의 크루즈선박이 13만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부산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동해남부선 철도 폐선부지 관광기능 공원으로 탈바꿈

## 우동~송정까지 9.8km구간, 자전거길·산책로·바이모달트램시설 등 700여억원 들여

동해남부선 철도 폐선부지 공원으로 탈바꿈 한다. 복선전철화 사업구간인 해운대구 우동 울림피교차로~동부산관광단지 경계까지 9.8km, 26만8천m가 그 대상이다.

부산시는 바다를 끼고 절경을 자랑하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구간을 관광자원화하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연립에 들어갔다. 이 구간은 해운대·미포·청사로 등 아름다운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영화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곳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우동 울림피교차로~동부산관광단지 구간을 동부산관광단지와 연계해 2015년까지 자전거길과 산책로, 바이모달트램 등의 관광기능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연립, 부산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 연말까지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부산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 것은 정부로부터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의 무상양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 부산시는 그동안 폐선부지를 도심공원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폐선부지의 무상양여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유지가 93.4%에 달하고 예상 감정가만 1천100억원이 넘는 데다 법률상 제약이 겹쳐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등은 대체시설을 기부받아 국유지를 양여토록 하고 있으나 부산에서는 마땅히 내놓만한 대체시설이 없기 때문. 부산시는 이에 따라 폐선부지를 공원시설로 묶어 무상양여를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도로·공원 등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 국유재산 무상귀속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시는 하아리아부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은 뒤 무상양여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부산시는 부산-울산 철도 복선화사업이 지난해 광역철도에서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일반철도로 전환되기 전까지 1천60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폐선부지 무상양여 자금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도시계획시설로 묶으면 정부로서도 활용방안이 마땅찮아 부산시민을 위한 공원·관광자원 부지로 내놓을 명분도 선다는 입장이다.

시는 폐선부지를 무상귀속 받으면 2015년까지 700여억원을 들여 공원, 산책로, 자전거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바이모달트램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 부산시민공원 최첨단 공원으로 조성

## 아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작인식 가족놀이 공간'도 조성

부산시민공원이 국내 최초로 유비쿼터스 기반의 최첨단 공원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최근 부산시민공원 U-Park 구축 사업과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했다. 총 사업비는 55억 원. 사업 제안서 제출은 다음 달 4일, 평가는 8일에 이뤄진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국내 굴지의 정보통신업체 10여 곳에서 부산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산시민공원에 구축되는 U-Park 시스템의 핵심은 안전관리 분야다. 최대 20억 원을 투입, 공원 내 행동과 소리의 패턴을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방범 CCTV가 42개나 설치된다. 공원 구석구석까지 살피다가 이상 동작이나 이상 음향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내 공원에서는 처음 적용된다. 일반 CCTV 47개

도 설치, 물품들 없는 안전망이 구축된다.

수목 관리도 최첨단으로 이뤄진다. 공원 내 보존 수목과 주요 수목에 RFIDIC칩을 내장해 무선으로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차세대 인식 기술) 기술을 적용해 체계적이면서도 실시간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문객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나무에 부착된 QR 코드를 찍으면 수목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술도 국내 공원에서는 처음 적용된다.

또 7억 원을 들여 최첨단 '4D 체험관'도 만든다. 청소년을 비롯한 방문객은 이곳에서 가상공간 체험을 할 수 있다. 부산시는 별도로 5억 원을 들여 시민공원 홍보용 4D 영상을 제작 중이다. 아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작인식 가족놀이 공간'도 조성된다.

# 감천문화마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부각돼

## 국제시장~광안리~해운대 잇는 부산투어 필수 코스로 자리잡았다



감천문화마을-국제시장-광안리-해운대를 잇는 부산투어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고 있는 부산사하구 감천 문화마을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 마을 방문객은 지난해 1년간 3만명이 다녀갔고 올 들어서 7월 말까지 3만9000명 정도가 방문했다. 벌써 작년 기록을 훌쩍 넘어섰다. 사하구 측은 "올해 방문객은 5만명을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작년의 2배 가까이 되는 방문객 수다. 아트숍, 카페, 북가게, 빛의 집, 어둠의 집, 평화의 집, 사진갤러리, 하늘마루... 산동네 구불구불 골목길 안에 방문 포인트들이 울망출망 자리해 있다. 마을 안내 지도를 따라 가다보면 마을 전체가 예술품이다.

사하구 측은 "국제워크숍 참가자들이 직접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 올리고 외국인 손님들이 찾아오는 등 감천문화마을은 세계적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감천문화마을'은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 살면서 형성된 마을로 이곳은 2009년 마을미술 프로젝트와 2010년 '비로미로 골목길 프로젝트'를 통해 변신을 시작했다. 벽화를 그리고 마을 곳곳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 과정에 주민들이 참가, 새로운 형태의 '마을재생 가비너스'를 선보였다. 이어 평화의 집 등 민집을 이용한 문화공간을 만들고 아트숍, 북가게 등도 등장했다.

마을의 콘텐츠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최근엔 마을 안 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한 커뮤니티센터 '감내어울터'가 문을 열었다. 지하 1층·지상 4층에 연면적 502㎡ 규모인 이 센터에는 도자기 공방, 카페, 갤러리, 문화 강좌시설, 방문객 커피 등이 들어섰다. 대형 육탕, 사우나실, 수도꼭지, 사물함 등 기존의 공공목욕탕 시설물을 그대로 활용, 인터리어를 해 방문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이곳은 예술작가 1명과 주민 2명이 상주하면서 도자기, 천연염색, 목공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갤러리 작품 전시·커피 피팅 예술품 판매 등도 하고 있다. 또 주민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이곳서 열린 예정이다. 인문학 강좌, 지역 특산물 제작,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감천주민사랑방, 작가모임방으로도 개방해 문화·예술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하구는 이런 문화적, 콘텐츠적 진화에 생활, 산업의 웃도 입힌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경훈 사하구청장은 "감천문화마을의 변신은 주민들과 전문가, 예술가, 공무원 등이 힘을 합쳐 이야기를 만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실험이자 도전"이라며 "이를 통해 이 마을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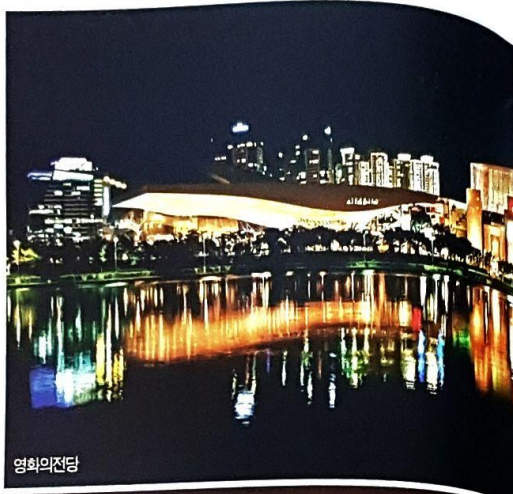


# 부산시, '부산야경명소 13곳' 선정

부산사에서 선정한 부산야경명소는 해운대 마천루 카페거리, 해운대해수욕장, 황령산 풍수대, 이기대동생말, 광안리해수욕장,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중앙공원, 송정해수욕장, 동백섬과 누리마루APEC하우스,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송도해수욕장, 대대포 꿈의 낙조분수 등이다. 지난해 '영화의 전당'이 새롭게 추가돼 현재 부산야경명소는 13곳이다. 부산의 야경을 한번에 즐기고 싶다면 부산시티투어비스가 운영하는 '야경코스'를 이용해볼만하다. 부산시티투어비스 야경코스는 오후 7시 30분(9월까지, 10~4월은 오후 7시)에 부산역을 출발,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달맞이고개, 광안대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등을 거쳐 부산역으로 돌아온다. 날씨가 좋으면 코스 중간에 포토타워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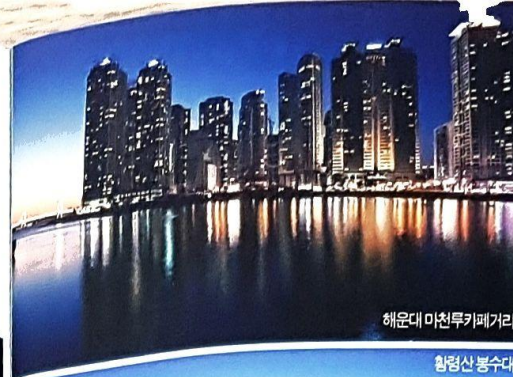
부산시티투어비스는 홈페이지(citytourbusan.com)와 전화(051-464-9888) 예약으로 운영되며 성인 1만원, 만4세~고교생 5000원이다.

이효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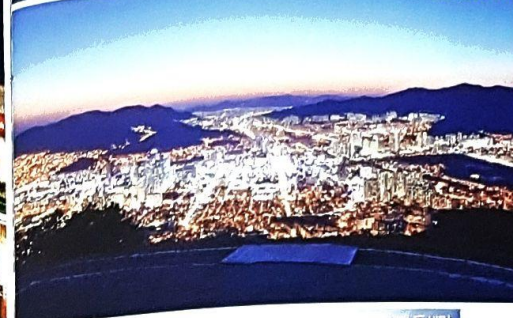


영화의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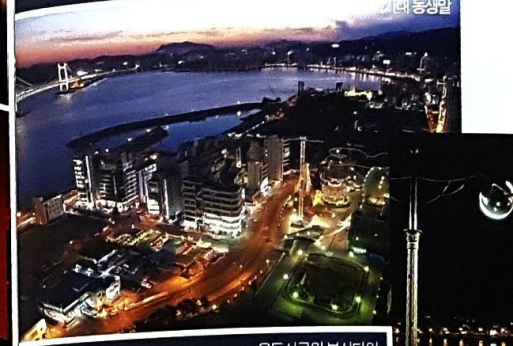
누리마루 APEC하우스



해운대 마천루카페거리



황령산 풍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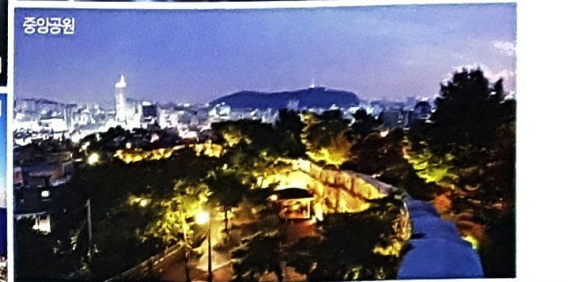


이기대 동생말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해운대해수욕장



중앙공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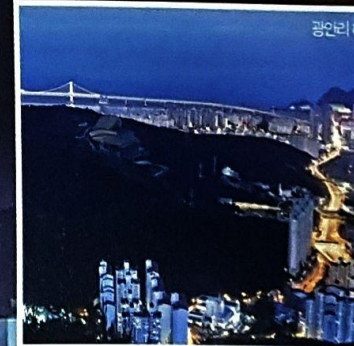
부 산 야 경  
명 소 (13 곳)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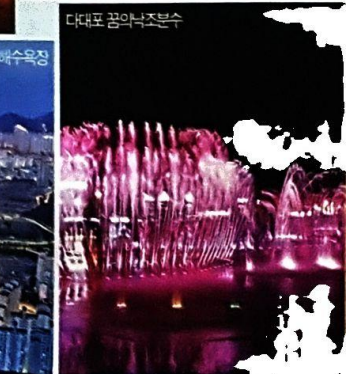
송정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대대포꿈의낙조분수





# 부산시, 광안대교 등 7개 교량별 야간경관사업 추진

## 광안대교 번지점프시설 설치, 북항대교 교량 박물관 건립 등 검토

부산의 대표적 교량인 광안대교 50m 높이에 번지점프 시설 설치가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근 용호부두에서 유람선으로 관광객을 싣고 광안대교 중간 부근에 간 뒤 교량 엘리베이터를 타고 번지점프대로 이동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번지점프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항대교에는 부산 7개 교량의 중심에 입지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부산 교량 전체를 볼 수 있는 교량박물관 건립 의견이 나왔으며, 남항대교에는 보행자 접근이 용이한 특성을 감안해 전망카페와 전망대 설치안이 제시됐고 을숙도대교에는 낙동강하구의 지리적 이점을 감안해 철새은폐관찰소 설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거가대교에는 해저침매터널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해저터널 진입부에 폭포분수대 및 분수터널 설치가 추진된다.

시는 또 7개 교량별로 독특한 색깔을 입히는 야간경관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량이 7개인 만큼 전체 교량을 가칭 '레인보우 다리'로 명명하고 교량별로 야간경관 조명사업에서 무지개색을 하나씩 입히는 작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7개 교량 52km를 달리는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등 해안교량 관광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오는 2016년 말까지 광안대교-거가대교(길이 52km)에 7개 교량 및 1개 터널로 이루어진 해안순환도로망이 구축될 예정인 만큼 관광콘텐츠 개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안대교(7.42km)→북항대교(3.3km)→남항대교(1.94km)→천마산터널(3.34km)→을숙도대교(5.2km)→신호대교(0.84km)→가덕대교(1.12km)→거가대교(8.2km)

김대현 기자



# 우체통 스토리 텔링

## 우체통으로 소통하는 이야기

### 초량동 산복도로에 빨간 '유치환 우체통'

#### 지역주민, 관광객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투입된 편지는 6개월~1년뒤 배달

동구청은 중앙 1·4부두 등 부산항 북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망양로에 오는 인만까지 카메라 렌즈 모양을 닮은 2층 건물로 된 전망대를 세울 예정이다. 카메라 렌즈가 세상을 보듯 북항을 잘 조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고 있다. 전망대 이름은 '유치환의 우체통'·지역에 면서 강남여고 교장을 역임한 유치환 선생의 스토리와 연결했다. 전망대이면서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편지처럼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입힌 것이다. 전망대가 들어설 곳은 김퓨터과학교 뒤편 골짜기 180m, 부산항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전망대는 1층과 2층 옥상으로 나뉘는데 1층은 계단식 야외공연장, 사방이 동유리로 된 2층은 평소에는 미술전시용으로, 때로는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하게 된다. 유치환시인은 강남여고에서 교장을 지냈으며 이 일대에서 활동하다 1967년 좌천동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인연이 깊은 곳이다. 전망대를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가족 등에게 쓴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면 6개월~1년 뒤 도착하게 된다.

### 대전 현충원 '하늘나라 우체통'

#### "당신이 떠난지 20년, 훗날 당신곁에 가거든 늙었다고 몰라보지 마세요"



국립 대전 현충원 민원 안내실 앞에는 높이 5m, 폭 3m의 하늘색 날개를 단 빨간 '하늘나라우체통'이 세워져 있다. 민병원 현충원 원장은 "유족과 참배객들이 앞서 보낸 가족을 그리워 하는 편지를 써서 표비앞에 놓아둔 편지가 빗물에 젖거나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고 우체통을 세우게 됐다"고 말한다. 또 "묘역 옆에 그동안 모은 우편물 1000여통을 책자로 발간, 교육자료로 활용 계획"이라고 말한다.

편지에는 "얼마전 네 생일 이었다. 왜 먼저 갔나 아들이"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 하는 누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고, 아빠를 잃은 딸은 "아빠 극복입은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그 웃음은 아빠 손잡고 걸은식에 들어 가려고 했는데" "당신이 떠난지 20년, 훗날 당신곁에 가거든 늙었다고 몰라보지 마세요" 우편물을 배달하다 급류에 휘말리 순직한 집배원 동생에게 누나는 "꿈에라도 나오지,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우리가 죽 다 만날때까지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거라" 눈물없이 읽을 수 없는 글, 그리고 20년전 군생활중 아들을 잃은 전대웅(72)씨는 한달에 5~6통씩 편지를 써 보내게 70여통, 편지는 모두 이곳에 보관돼 있는데 전씨는 하늘나라에서 지켜 보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서 죽는날 까지 편지를 쓰겠다고 하면서 '아들이'이곳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곳은 웬잖나? "어쩌다 편지라도 한 통 놓아주면 매번 툭 하고 바둑을 치는 소리가 들리온다"고 했다. "그 소리가 내겐 왜 가슴이 뭉비어 울리는 소리. 심장이 텅텅빈채 무엇인가 공허하게 사라지는 소리로 들리오는 것일까" 하고 손백수 시인은 읊었다. 2010년 3만5000여개가 있던 빨간 우체통은 이제 2만 3000여개 까지 줄어들었다.(우정청통계)

### 울산 간절곶 '소망우체통'

#### 부모·가족에 대한 그리움, 부부·연인들의 애틋한 사연 적어넣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간절곶 공원에 새해 일출을 보러오는 시민이나 전국에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족, 친구, 연인에게 사연을 적어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빨간 '소망우체통'을 2006년 12월 높이 5m, 폭 2.4m 규모로 바다를 향해 세워졌다. 우편 편지는 울산시가 미리 요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 무료로 배달해 준다. 수취인이 없는 소망우체통에는 부모, 가족에 대한 그리움, 부부, 연인사이 속 마음을 적는다. 그중 애틋한 사연은 방송으로도 소개된다. 새해 해맞이 때는 하루 7000여통이나 발송되고 한다. 한편 남 울산 우체국은 소망우체통 옆에 편지나 엽서를 쓸 수 있는 부대시설을 새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봉모 btjbusan@hanmail.net



# 사랑과 감동을 주는 한국최대의 불꽃향연

10월 26일 오후7시 아시아드주경기장 K-POP콘서트  
10월 27일 오후8~9시, 광안리 해수욕장 멀티 불꽃쇼



올해 불꽃축제는 더욱 화려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내  
외국인 관광객을 사로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축제 첫날인 26일 오후 7시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서는 K-POP콘서트를, 27일에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광  
안리 해수욕장과 광안대교일대에서 불꽃 퍼레이드와 음  
악회를 열고 오후 8시, '부산멀티불꽃쇼 불꽃거리공연이  
이어질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올해는 K-POP과 불꽃축  
제 라는 인기 문화콘텐츠가 서로 만나 한류의 확대 및 부  
산세계불꽃축제의 세계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제8회 부산불꽃축제'를 보다 다채롭게 꾸미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아이콘'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  
혔다. 또 '콘텐츠 강화'를 토대로 해외 관광객 1만명을  
유치하기로 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우선, 첫날인 26일 오후 7시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아시  
아드주경기장에서 K-POP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중국  
과 일본의 '한류(韓流)' 인기를 겨냥한 프로그램이다. 아  
이유·동방신기·티팟 등 아이돌 가수과 개그팀 '용감한  
너석들' 등이 출연한다.

둘째날인 27일 오후 4~8시 광안리해수욕장과 광안대  
교 일대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해변거리 퍼레이드, 저글  
링, 거리 그래피티, 음악회 등이 열린다. 퍼레이드는 광안  
리 차 없는 거리에 군악대·타악대·교차대, 만화 주인공  
복장을 하고 나오는 코스프레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저글링 등 공연은 광안리 백사장에 마련된 5곳의 간이무  
대에서 진행된다.

하이라이트인 '부산멀티불꽃쇼'는 이날 오후 8시 시  
작, 1시간 동안 이어진다. '시민에게 사랑과 감동을 주는  
한국 최대의 불꽃향연'이 올해의 주제. 이 주제에 맞게 불  
꽃쇼 중 2~3분 정도의 '프리포즈 타임'을 들 예정이다. 은  
은한 음악이 깔리고 밤 하늘 위로 하트 불꽃이 떠다니는  
가운데 연인·가족들이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는  
시간이다.

또 직경 400m짜리 대형 불꽃을 밤 바다 위에 피우는 대  
통령 불꽃 등 중·대형 폭죽 수를 지난해보다 30%가량 더  
많이 쏠 계획이다.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낼 '깜짝쇼'는  
무지개 불꽃, 빨주노초파남보, 7가지 색깔의 불꽃이 무지  
개 모양으로 광안리 앞바다 위에서는 낫, 낫도 아니고 비  
가 온 것도 아닌데 밤에 피어나는 무지개다.

부산시는 이 불꽃축제를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관광상  
품, 세계인이 즐기는 명품 축제로 만들기 위해 해외 관광  
객을 적극 유치하기로 하고 우선 일본과 중국 관광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1만명 유치가 목표다. 특히,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등  
중국 주요 15개 도시 여유국(관광정책담당 중국정부기구)  
과 외사처(출입국업무처리 중국정부기구) 관계자를 초청,  
중국 내 '불꽃축제 바람'을 불려일으킨다는 구상이다.

## 부산불꽃축제 프리포즈타임 주인공 커플 공개모집

"전 세계에서 가장 로맨틱하게 사랑을 고백할 커플을 찾습니다."

부산시는 제8회 부산불꽃축제 기간중 프리포즈타임 주인공을  
찾는다. 올해불꽃축제 주제는 '사랑(LOVE)'에 맞춰 오는 27일  
오후 8시 시작하는 부산멀티 불꽃쇼 도중 '프리포즈 타임'을 갖  
고, 그 시간 주인공이 될 한 커플을 공개 모집한다. 프리포즈 타임  
주인공으로 선정된 커플은 부산멀티불꽃쇼 2막이 끝난 후 광안리  
해수욕장 중앙 특설무대에 올라 3막을 장식한다. 광안대교에서 대  
형 조명이 무대에서 있는 커플을 비추면 로맨틱한 음악이 흐르고,  
하트를 비롯한 다양한 모양의 대형 불꽃이 광안리 밤하늘을 장식  
한다. 무대 위 커플의 프리포즈 장면은 광안리 해수욕장 앞바다에  
설치된 500인치 대형 화면 3대를 통해 중계, 불꽃쇼에 참석한 40  
만여명의 관람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뤄진다.

손해시 편집위원





## 부산에서 펼쳐지는 일본문화 교류의 장 '부산재팬위크'

지역간 교류 촉진의 일환으로 일본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행사



재부산일본국총영사  
요엔 유키요(奥田祐夫)

한국 각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일본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사업인 '재팬위크(Japan Week)'는 1998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역간 교류 촉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선언을 통해 활성화에 합의함으로써 시작된 사업이다. 이후 '재팬위크'는 14회에 걸쳐 한국의 각 지방도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2012 부산재팬위크'는 15회째 행사로, 1999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래 13년 만에 열리는 뜻 깊은 행사이다.

인의대수의 거리에 있는 일본과 한국의 교류는 수천 년에 달하며, 화합과 경쟁을 반복하면서 오늘날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부산을 비롯한 이곳 영남지역은 지리적으로도 일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한일 교류의 창구

라 할 수 있다.

'2012 부산재팬위크'에는 경인회와 전시회, 퀴즈대회, 상담회, 워크숍을 비롯하여 다양한 행사를 준비함으로써 일본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시민과 일본과의 사이에 시민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요엔유키오 일본국 총영사관 영사가 전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 11일 일 부산광역시 일원

부산재팬위크 2012 참가문의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공보문화부 Tel 051-469-3508  
http://www.busan.kr.emb-japan.go.jp/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유산' 등재, 세계적인 문화브랜드로 추진

조선의 시절단이 걸었던 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활력 얻을 듯

조선통신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부산의 문화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부산 문화재단과 조선 통신사 연지연락 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후 신뢰를 기반으로 한일 문화예술 교류와 평화, 선린우호의 의미를 새로운 가치로 재조명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이를 위해 오는 19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다. 특히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의 유네스코 위원에 참석해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발트의 길(노래혁명길)'에 관한 사례를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하루 앞서 18일 같은 장소에서 '조선통신사 연구도시 관련 사례 포럼'을 개최한다. 재단은 이와 함께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을 찾아가 등재를 위한 여론 조성을 나섰다.

재단은 18, 19일 이틀에 걸쳐 조선통신사 사행길과 바닷길에 관한 역사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 발트 3국의 유네스코 위원을 조병해 국제 포럼과 심포지엄을 잇달아 열기로 했다.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인 완전성, 진정성, 뛰어난 보편적 가치(OUV) 내게 여부를 탐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조선통신사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조선통신사 축제는 한일 문화의 실�크로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우선 양국 문화·관광·경제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내 부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도 덩달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발트 3국의 '발트의 길'은 2007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세계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자리잡았다.

###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

조선통신사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사절을 말한다. 통신이란 신의를 나누는 의미로, 조선통신사를 통한 교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선과 일본의 평화와 선린우호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200여 년간 조선통신사는 일본을 12회 걸쳐 방문했다. 조선통신사는 정사, 부사, 종사관 등 400~500명에 이르는 대사절단이다.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출발해 일본의 수도 에도까지 가는 데 반년 이상 걸렸다. 통신사는 일본의 많은 문인과 필담을 나누고 노래와 술잔을 주고받는 등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통신사 인행의 최종 출발지였던 부산은 일행의 집대와 특산물과 예단 모집, 해선제 준비 등 통신사 파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 베스코 1·2전시관, 오디오리움, 전시컨벤션행사 잇따라 개최

해운대 부산 베스코가 지난 6일 시선화중 이후 각종전시컨벤션행사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는 세계 물 관련 윤리학에 해당하는 IWA 물 총회에 시는 세계 130여 개국에서 7000여 명의 물 관련 전문가와 기업, 학회,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가해 '글로벌 물 문제의 새로운 해결방안' 개최'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으며, 이어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부산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2012)이 개최됐다.

또 '2012 아시아 필름마켓'은 부산국제영화제(BIFF)에 맞춰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베스코에서 열렸으며, 국내의 40개 국에서 500개사, 1500여 명의 영화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제 게임전 '지스타 2012'는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데, 올해는 'Game Touching the World'라는 슬로건으로 전 세계인 이 게임을 통해 하나되는 의미를 전한다. 2009년부터 '게임의 바다'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지스타는 세계 3대 게임전시회로 자리잡고 있다.

베스코가 시선화중 이후를 대비한 권력전시회로 직접 개발한 2012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OFFSHORE KOREA 2012·약칭 OK2012)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일정이 잡혀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등 국내 4대 조선사가 참가를 확정하고 당초 목표했던 700부스를 이미 초과하는 등 벌써부터 국내외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부산국제수산업엑스포 2011'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30개국 307개사 700부스 규모로 개최된다.

이 밖에 신발과 섬유패션산업 활성화와 수출 구매상담을 위한 부산 국제첨단신발부품전, 부산국제섬유패션전, 부산국제금융박람회 등 올 가을 베스코를 뜨겁게 달굴 행사로 준비가 한창이다.

## 부산시 - 후쿠오카시 내년 "컨벤션, 게임·영상 디자인·패션·수산물류·글로벌 인재육성" 5개 분야 적극 추진



부산시와 후쿠오카 양 도시는 최근 일본 후쿠오카시청에서 제4회 협력사업추진위원회 협동회의를 열고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컨벤션과 게임·영상, 디자인·패션, 수산물류, 글로벌 인재육성 5개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컨벤션 분야에서는 양 도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컨벤션을 대상으로 '애프터 컨벤션'을 교차 개최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게임·영상 분야에서는 양 도시의 민간 게임기업 중심의 실질적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으며, 디자인·패션 분야에서는 부산-후쿠오카 패션거리 축제 공동개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산물류 교류를 위해서 양 도시 간 정보교환 및 거래 시스템 구축을 협의키로 했으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후쿠오카 중학생의 부산글로벌빌리지 여름캠프 참가와 부산지역 대학생의 후쿠오카 기업 인턴십 추진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중점추진 5개 분야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곧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도시는 또 오는 10월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3회 비즈니스 CEO 포럼을 개최하고, 11월 중에는 후쿠오카시에서 무역상담회도 개최키로 했다.



# 10월, 축제 릴레이 부산이 즐겁다



## 제21회 자갈치문화축제

14일까지 자갈치 시장 일원에서 개최

'오이스, 보이소, 사이소를 외치는 자갈치 아지매의 흥겨운 목소리' 전국 최대, 최고 명성의 수산물 축제인 부산자갈치축제가 지난 10일전야제를 시작으로 11~14일 자갈치시장-웅두산공원 광복로 등에서 열렸다. '생선회 맛 천국, 자갈치를 주제로 거리행진, 축하공연, 장어-문어 잡고 이어달리기, 범선 체험, 수산물 깜짝 경매 같은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즐겁게 했다.

## 제11회 40계단문화축제

17일부터 40계단 일원에서 개최

40계단 문화축제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의 역사와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나이드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시절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고 젊은이들에게는 우리들의 슬픈 역사적 사실을 인식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 주민들에게는 삶을 재충전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오후 3시부터 40계단특설무대에서 초청가수공연, 40계단 가요제, 전통음식 무료 시식회,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열린다.

## 그외의 10월의 부산의 축제

10월 18~21일	철마한우축제	철마면 장전천 들녘
10월 25~27일	UN평화대축전	UN기념공원, 부산문화회관
10월 25~29일	부산고등어축제	송대해수욕장, 부산공동어시장 일원
10월 26~28일	낙동강하구 에코문화축제	감천문화마을, 을숙도 일원

##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 '자갈치시장'

도시 이미지는 해양도시, 영화도시, 관광도시 순

부산지역 관광지 중 외국인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자갈치시장, 외국인이 즐기 찾는 곳은 해운대해수욕장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산지역 관광·통계 전문가, 관광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부산관광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내·외국인 방문객 실태조사, 중국인 관광객 인터뷰조사, 부산방문관광객 수 조사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방문객의 부산방문 목적은 여행·휴가 65.5%, 친구·친지 방문 19.4%순이었다. 방문횟수는 2~4회 38%, 1회 33% 순이고, 체류기간은 평균 2.19일로 나타났다.

1인당 여행 지출경비는 29만9325원으로 나타나 2010년 21만 3367원에 비해 40%늘었다.

주요 방문지는 자갈치시장, 해운대, 광안리순이었다.

부산에 대한 도시 이미지는 해양도시, 영화도시, 관광도시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컨벤션 도시라는 응답이 9%로 2010년 3.6%에 비해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인 방문객실태조사의 경우 방문목적은 여행·휴가 72.8%, 쇼핑 28.9%, 친구·친지방문 10.1%순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은 한국 전체 5.1일 중 부산에서 2.9일 체류했고 1인당 여행 지출경비는 93만 4880원으로 2010년 106만7910원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방문지는 해운대 해수욕장 63.4%, 국제시장 51.9%, 남포동 일원 47.7%순이었다.



주요활동은 쇼핑 69.2%, 자연·명승·경관감상 54.7%, 관광지 방문 49.7%순이었다. 쇼핑장소는 백화점 38.8%, 재래시장 38.4%, 면세점 33.4% 등지에서 식료품 52.0%, 화장품 38.7%, 의류 31.1% 순으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 대한 이미지는 5점만점 기준으로 방문 전 3.53점에서 방문 후 4.04점으로 10%이상 개선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은 내년 2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조사결과를 활용, 내·외국인 관광객 인프라를 정비하고 홍보·마케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건물 두 호텔' 영업인정

'한지붕 두가족' 호텔 영업을 두고 법적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가 한 건물에서 두 호텔 영업을 인정했다.

해운대구는 건인가 씨클라우드호텔 169개 객실에 대한 영업신고서를 제출해 영업신고증을 발급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씨클라우드호텔은 420개 객실 중 코오롱씨앤씨가 위탁받은 220개 객실과 건인가 위탁받은 169개로 양분해 운영된다.

해운대구는 "하나의 집합건물에 두 개의 영업장이 존재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난 7월 건인가 제출한

영업신고증을 반려했다.

해운대구의 영업신고증 발급은 지난달 18일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건인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숙박 영업신고 반려 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한 것이 계기가 됐다.

코오롱씨앤씨는 행정위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대법원보다 먼저 '복수의 숙박업 영업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앞으로 호텔 개별소자들이 제각각 영업신고를 신청하면 구청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 釜山の 숙박시설 / Accommodation

### 특급 호텔



**부산롯데호텔**  
 ☎ 051810-1000  
 www.lottehotelbusan.com  
 ○ 부산진구 부전동 503-15  
 ♣ 총객실 762



**파라다이스호텔부산**  
 ☎ 051742-2121  
 www.paradisehotel.co.kr  
 ○ 해운대구 중동 1408-5  
 ♣ 총객실 538



**노보텔엠베서더부산**  
 ☎ 051743-1234  
 www.novotelbusan.com  
 ○ 해운대구 중동 1405-16  
 ♣ 총객실 356



**호텔농심**  
 ☎ 051550-2100  
 www.hotelnongshim.com  
 ○ 동래구 온천동 137-7  
 ♣ 총객실 240



**해운대그랜드호텔**  
 ☎ 051740-0114  
 www.grandhotel.co.kr  
 ○ 해운대구 우동 651-2  
 ♣ 총객실 320



**부산웨스턴조선호텔**  
 ☎ 051749-7000  
 www.echosunhotel.com  
 ○ 해운대구 우동 737  
 ♣ 총객실 290

### 특2급 호텔



**코모도호텔부산**  
 ☎ 051466-9101  
 www.commodore.co.kr  
 ○ 중구 영주동 743-80  
 ♣ 총객실 314



**호텔파리곤**  
 ☎ 051328-2001~2  
 www.hotelparagon.com  
 ○ 사상구 계림동 564-25  
 ♣ 총객실 132



**호텔호메르스**  
 ☎ 051750-8000  
 www.homershotel.com  
 ○ 수영구 광안동 193-1  
 ♣ 총객실 103



**호텔아쿠아엘리스**  
 ☎ 051756-0202  
 www.aquapalace.co.kr  
 ○ 수영구 광안2동 192-5  
 ♣ 총객실 70

### 1급 호텔

호텔명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국제관광호텔	www.hotelkukje.com	동구 범일동 830-62	051642-330
부산관광호텔	www.pusanhotel.co.kr	중구 동광동 271 12	051241-4301
피닉스호텔	www.hotelphoenix.net	중구 남포동 5가 8-1	051245-8061
미리보호텔		연제구 연산동 1124-25	051866-7400
시우스피서픽		사상구 영곡동 149-1	051328-9911
부산아리랑관광호텔	www.ariranghotel.co.kr	동구 초량동 1204-1	051463-5001
송정관광호텔	www.songjunghotel.co.kr	해운대구 송정동 297-9	051702-7766
호텔일루아	www.hotelillua.com	해운대구 중동 1509-2	051744-1331
동부산관광호텔	www.dongbusanhotel.com	기장군 기장읍 기룡리 454-3	051727-9991

### 리조트·콘도·유스호텔

호텔명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한화리조트	www.hanwharesort.co.kr	해운대구 우1동 1410-3	051749-5500
씨클라우드호텔	www.seacloudhotel.com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87번지	051933-1000
글로리콘도	www.glory.co.kr	해운대구 우동 628-5	051746-8181
금강국민호텔	www.금강국민호텔.kr	동래구 온천동 산 1-4	051554-3235
대우월드마크콘도	haeundae.worldmark.co.kr	해운대구 우동 1435-2	051746-9342
팔레드시즈콘도미니엄	www.paledecz.co.kr	해운대구 중동 1124-2	051746-1010
아르파니유스호텔	www.arpina.co.kr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45	051731-9800

## 부산~후쿠오카 두 항만도시간 2012 '왔다갔다 아트 페스티벌'

### 부산항연안여객터미널 가을의 거리, 예술의 매력에 빠지다

원도심상자공간 모따모가 운영지원센터(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는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2012 WATAGATA Arts Festival이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개최됐다. 지난 2010년 부산후쿠오카 두 지방도시의 예술가와 예술행정가를 중심으로 발족된 '왔다갔다 아트 페스티벌'은 지역적 예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예술가들의 상호 인제 교류와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관계 형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양국의 예술가들이 서로의 도시를 오가며 문화 교류를 배우고 심포지움을 열었다.

지난 8일에는 2012 WATAGATA Arts Festival의 일본측 총감독가 친원이 약 2주일간 부산에 체재하며 부산의 시민과 예술가와 함께 부산을 탐방 하며 작품을 제작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번에는 예술가, 시민이 함께 교류하며 만들어낸 작품들은 지난 2일 용두산미술전 시관을 시작으로 본전시인 부산항연안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전시됐다. 왔다갔다 아트 페스티벌의 큐레이터인 심우현씨는 "일회성 행사 치르

기에 급급하지 않고 꾸준하게 대화하면서 두 도시의 문화예술교류의 방안을 모색하는 위기를 가지고 진행되어왔다. 특히 올해의 메인전시관인 부산항연안여객터미널은 부산후쿠오카의 두 항만도시가 만나는 만남의 장소로써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라고 전했다.



## 2012 가을 독서문화 축제 - 시민의 서재 용두산 공원 및 40계단 테마거리 일원

부산문화예술연합회가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2012 가을 독서 문화 축제를 12일부터 14일까지 용두산 공원 및 40계단 일원 테마거리에서 개최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도서 체험을 통하여 책과의 친밀감을 형성함과 동시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독서의 접근으로 독서와 인문학의 중요성을 알리고 독서인구 확대 및 출판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서재>라는 주제로 누구나 공감하는 '서재'라는 공간을 아외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독서를 단순히 '책 읽는' 독서를 넘어, 독서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가을독서문화축제를 준비하였다.

축제의 시작인 개막행사 '북 콘서트'가 용두산공원 야외무대에서 '심진강 이야기', '참 좋은 당신' 김용택 시인 낭독 및 관객과의 대화를 가졌다. 그리고 '작가의 만남' 14일 부산타워 용두산개에서 강은교(시인), 배유인(동화작가), 강동수(소설가)씨가 참여, 독자들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시민의 서재란

책 읽는 시민들의 책 보금자리이자 시민 각자가 하나의 서재이자 도서관임을 말합니다. 책을 사랑하는 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서재를 꾸미고 책 읽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할 겁니다. 개인의 공간으로 소중히 간직했던 시민들의 서재를 사진 공모를 통해 전시하고 자신만의 애독 도서 목록을 소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시민 모두가 한편의 책이자 하나의 서재이고 도서관이라는 것은 삶의 경험이 축적된 시민들 각자는 끝없는 정보와 감동을 주는 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각자의 삶이 교류하고 책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가 이번 축제에 마련됩니다. 서로의 삶과 정서를 나누는 장으로서 '시민의 서재'는 축제 자체가 하나의 서재가 될 것입니다.



# 국내·외 여행 표준약관

## 국내여행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 10020호)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여행사의 여행사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의 의무)

-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업업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많은 바 업무들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기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진지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 ① 화합여행 : 여행자가 화합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 ②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③ 워너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다업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 제4조(계약의 구성)

-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진지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② 여행진지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진지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5조(특약)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진지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진지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진지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때

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한 경우  
 ② 여행업자가 캐시비터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진지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시점을 출발전대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한 경우.

###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 ① 여행업자는 여행출발시부터 도착까지 여행진지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 규정한 여행업자업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②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의 연료비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입증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여행업자는 저가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금 해대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인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업자가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인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기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배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 제11조(여행요금)

-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화합

여행은 당일차권 합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승차권의 요금(또 동승임대료)
  2. 공항, 기, 무도 및 호텔차이 등 승임대료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차량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입장료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귀속합니다.
-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에 여행업자가 지정된 방법(저로구와,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화합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12조(여행조건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

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여행이 종료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본문에 기재된(당첨지배위원회 고시 제2011년 호)에 따라 배정합니다.
-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3조제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배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행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죽어내 친족의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진지태로의 여행진지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

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제16조(설명 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제18조(기타 사항)

-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법정 및 인천광역시 관할 법원에 따릅니다.
- ② 특수지역에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 ※ 국내·외 여행 표준약관은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0-1호)

####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 당일여행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 숙박여행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 ■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 당일여행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 전액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 요금의 10%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요금의 20%배상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 숙박여행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 전액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 요금의 10%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요금의 20%배상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배상

##### ■ 여행자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여행진지 당일여행

-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 숙박여행

-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 여행할(가) 수의 미달로 여행자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 통지기간 미준수)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의 위약금 배상
-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3) 여행사 또는 여행중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 배상
- 4) 여행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5) 여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부산, 중국 크루즈관광객 역대최다

## 9월까지 3만2천명 지난해 기간의 .4배 늘어 연말까지 4만5천명 더 올듯

올 들어 부산을 찾은 중국인 크루즈관광객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중국인 크루즈관광객은 3만2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0% 늘어났다. 크루즈관광을 즐기는 중국인이 크게 늘어난 데다,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대형축제를 즐기려는 축제특수가 한 몫을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부산항 입항 크루즈 승객 급증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하고 입출국 수속을 간소화, 관광객 편의제공에 나섰고 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부산항 크루즈관광객은 9만2천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0%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인은 9월 말까지 3만2천99명이 찾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9천427명에 비해 3.4배 증가한 것이다. 연말까지 4만

5천여명이 더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중추절(9월 29-30일)과 국경절(10월 1-7일) 연휴동안 크루즈를 이용해 부산에 온 중국인은 8천93명에 달한다. 이 기간 크루즈를 통해 부산을 찾은 중국인 수로는 역대최다이다.

최근에는 초대형 크루즈선 '보이저 오브더 시즈' (13만7천급)와 '레전드 오브더 시즈 호'(7만급)가 다오위다오(일본명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간 갈등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반발로 일본 후쿠오카를 빼고 부산항에 바로 입항하기도 했다. 보이저호와 레전드호는 대표적인 한·중·일 크루즈선으로 승객 대부분이 중국인이다.

## 부산 외국인관광객 최고 씀씀이는 중국인 184만5천원으로 일본인에 두배가 넘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돈을 많이 쓰는 '큰손'은 중국인 관광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2012부산관광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결과다. 용역을 맡은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을 찾은 내·외국인 1천83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월 면접 조사 방식으로 2010년에 이어 2년만에 실시했다.

외국인 중 중국인은 평균 184만5천159원을 사용해 일본인(99만 9천678원)과 미국인(65만6천927원)보다 훨씬 씀씀이가 컸다. 4위는 독일인으로 60만9천926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 평균 1인당 여행 지출 경비는 93만4천580원으로 2010년 106만7천910원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 국내관광객 부산지출 평균 29만원

부산을 찾는 내국인은 1인당 여행 지출 경비가 평균 29만9천32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사람 평균 30만원 가까이를 쓰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는 2010년 21만3천367원에 비해 약 40% 증가한 수치. 부산시의 '2012부산관광실태조사' 용역 결과다.

다른 시·도 관광객들이 느끼는 부산에 대한 도시 이미지는 해양도시, 영화도시, 관광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컨벤션도시라는 응답이 9%로 2010년 3.6%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내국인 방문

외국인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품목은 식료품, 향수·화장품, 의류, 수산물 등의 순이었고, 쇼핑장소는 백화점 38.8%, 제재시장 38.4%, 면세점 33.4% 순이었다. 외국인의 부산 방문목적은 여행·휴가 79.8%, 쇼핑 28.9%, 친구·친지 방문 10.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찾는 장소는 해운대해수욕장, 국제시장, 남포동, 자갈치시장, 용두산 공원, 서면, 광안리, 태종대, 아쿠리아리움, 전통시장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전체 평균 체류기간 5.1일 가운데 부산에서는 2.9일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에 대한 이미지는 5점 만점 기준으로 방문 전 3.53점에서 방문 후 4.04점으로 개선됐다.

객들이 부산을 찾는 목적은 여행·휴가 65.5%, 친구·친지 방문 19.4% 순이었으며 체류기간은 평균 2.19일로 나타났다. 2일 체류가 45.0%로 가장 많았다.

주요 방문지는 자갈치시장, 해운대, 광안리 순이었고 부산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해운대, 태종대, 광안리로 방문전후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부산을 찾는 내국인 거주지는 경남 20.2%, 서울 18.2%, 경북 13.0% 등의 순이었다.

# 釜山

羅添宏 지음 | 劉忠國 옮김



주한문화이해대표부 駐在員로 티안 홍(劉忠國) 부산 거주처 재장용영사는 1985년 일우고기 합작, 이후 외교부 장로써 사무관을 거쳐 2007년부터 주한문화이해대표부 부산사무처 처장(용영사)로 근무중

韓國山川秀麗  
氣候溫和  
物產豐饒

釜山尤其得天獨厚  
依山而海, 有著世界最優良的港口  
海空便利, 是東亞交通的樞紐  
工商繁榮, 人民勤奮努力不懈  
人文薈萃, 文風鼎盛人才輩出

太宗台, 龍頭山, 梵魚寺, 冬柏島, 五六島等名勝古蹟  
還有松島, 廣安里, 海雲臺, 松亭, 日光等海水浴場  
處處是景, 美不勝收

東萊洗溫泉  
乙淑島觀鳥  
菴山林沐浴  
賈吸機嚐海鮮  
機張探訪果園與菜圃

光復路時裝街及國際市場購物  
還有那永遠難忘的廣安大橋夜景

三百五十萬人生生活在山海之間  
釜山, 一座令人流連的城市  
釜山, 一座繽紛多采的城市  
釜山, 一座真正的世界級城市

산천은 수려하고  
기후는 온화하며  
풍토로운 대한민국

그 중에도 하늘이 내어준 신궁, 부산  
배산임해의 지형으로 최고의 항구를 자랑하는 부산  
바다와 하늘 길이 편리한 동아시아 교동의 중추  
발달된 산업, 근면성실한 시민  
문화가 모이고 문명이 융성하며 대대로 인재를 배출한다

태종대, 용두산, 범어사, 동백섬, 오륙도 등 명승고적  
그리고 송도, 광안리, 해운대, 송정, 일광 등 해수욕장  
가는 곳마다 경치가 빼어나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는다

동해에서 온천에 몸을 담고  
물속에서 철새와 인사를 나누고  
장산에서 산림욕을 한 후  
자갈치시장에서 해산물을 즐기고  
기암에서 라수원을 거닐며  
광복로 태선역의 거리와 국제시장에서 쇼핑을 하고나니  
잊지 못할 광안대교의 환호찬 야경

3백 5십만인 산과 바다를 벗삼아 살아가는 곳  
부산, 잊지못 할 도시  
부산, 오색찬란한 도시  
부산, 진정한 세계 수준의 도시





## 부산축제와 지역문화 정체성



박 봉 규  
동의대학교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교수  
(사)부산관광포럼 회장

지역적 문화가치를 토대로 한 공동체 의식에 기반하지 않은 축제는 정치적 논리나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생명력을 잃고 화석화된 일회성 이벤트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축제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가진 기본적 욕구 충족의 문화적 표현이고 이를 통해 삶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며 상호 간의 연대감을 공고히 한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을 때 지역민은 자신의 지역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 자기 고장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은 높아진다. 또한 부수적인 효과로 외래관광객들이 증가하여 지역의 대외 이미지가 좋아지며, 그 결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

최근 15여년간 부산지역 축제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축제의 외형적 효과인 관광객 유입 효과, 경제적 과급 효과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축제의 내재적 또는 공동체적 가치가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딜레마에 빠졌다. 지역적 문화가치를 토대로 한 공동체 의식에 기반하지 않은 축제는 정치적 논리나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생명력을 잃고 화석화된 일회성 이벤트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부산은 오래된 축제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 6.25동란, 경제 개발 등의 험난한 근현대사 과정 속에서 축제적 유희성을 상당히 오랫동안 잊고 지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부산지역 축제의 수가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였지만 축제의 근본적 의미인 스스로 즐겁게 즐기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보다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진정한 축제 문화를 뿌리내리고자 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프로야구 시즌이 되면 사직구장에서 롯데 자이언트 응원단 부산갈매기의 '신문지꽃술'과 '주홍색 비닐봉지' 응원 물건을 통해서 축제적 흥분과 칸타지역 민족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멀게만 느껴지던 타인들과의 관계성이 어떻게 새롭게 설정되는지 등에 대한 경험을 한다. 축제는 그렇게 흥분과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고 현실의 모순을 비틀어 정화하게 인식하게 하면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지탱해 주는 문화적 요소로서의 역할을 독특히 한다. 최근 부산 지역에서 개최되는 연간 60여개 축제들이 너무 많으므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자갈치시장은 1876년 개항과 더불어 부산의 근현대사에서 부산시민의 이름과 기쁨을 지닌 역사의 상징으로 부산의 이미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압축하고 있는 곳이다 할 수 있다. 50년대 이래 먹고살기 힘든 시절, 자갈치시장은 일명 고무다리가 좌판 하나로 고기를 필러서 오남배를 공부

시키고 시집장가 보냈다는 자갈치 아저매들의 삶의 애환과 여정이 전설처럼 회자되는 곳으로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고단한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다가는 상징적인 곳으로 지역민들의 생생한 발자취와 이야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1992년 제1회 자갈치수산물축제를 개최하여 1996년 제1회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로 변경한 이래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부산자갈치축제는 "오이소!보이소!사 이소!"를 슬로건으로 한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10월 둘째 주, 4일간 자갈치시장, 용두산공원, 광복로, IMF 광장 등 중구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현재 부산의 자갈치라는 고유명사는 근대와 현대가 동일한 시점과 공간에서 공존하고 소통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장소이자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갈치는 부산다움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문화자원을 지니고 있어 단순히 문화자원에 머무르지 않고 단순한 공간개념을 뛰어넘는 기호체계로서 부산자갈치축제를 통해 부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문화적 가치로서의 위상을 자리 잡기 위해 자갈치 스토리텔링을 통해 부산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동래읍성역사축제는 동래읍성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임진왜란 때 동래성을 지키기 위해 동래부사 송상헌(宋象賢)과 동래읍성민들이 일치단결하여 결사 항전하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한 축제로 10월 초순에 3일간 개최되며, 1995년 동래총력제로 시작하였다가 2015년부터 동래읍성역사축제로 개편되었다. 축제의 주제는 '동래성 사람들? 그 역사속으로'이며, 개최장소는 동래읍성 마당과 상백주빈, 동대부의 관아 터, 동래향교, 충렬사, 동래성터, 북관박물관 등으로 역사축제가 의미가 살아난다. 동래읍성역사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의 역사를 매개로 하여 축제의 이미지가 구성되어 있다. 축제참가자들에게 입담의 장소로 동래읍성을 무대화하고 거리 코레이드를 통해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시작화시켰다. 동래성터, 동래읍성 장소에서 당시의 역사체험 및 입장객 삼 문화체험을 통하여 동래사람들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재생산하여 현재화시킨 축제라 할 수 있다. 특히 2010년 제16회부터 선보인 길이 9m, 몸줄 굵기 4cm의 동래줄다리기는 1930년 당시 부산 인구 6만명 중 2만명이 3일 동안 줄을 단것인 우리 민족의 단합을 상징하는 대동놀이를 재현한 행사로 동래들은 전국 유일의 3가닥 줄이 특색이다.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의 삭막한 삶을 위로하는 지역 감성력의 총체적 표현이며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의미와 가치를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

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방치할 경우에는 아무리 소중한 자원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모든 이들에게 잊혀지고 사라져 버려서 흔적조차 남지 않는 경우도 많다. 지역의 문화자원은 지역민의 문화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상징적인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문화자원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는 새롭게 창조된다. 동래읍성역사축제를 대한 관심으로 송상헌 부사와 동래성 사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자갈치축제를 통하여 부산의 이미지를 상상하고 부산사람을 알게 된다. 지역문화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축제이며 이를 통해 지역문화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동하며 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반복과 순환으로 지역문화의 정체성은 확립되는 것이다.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의 삭막한 삶을 위로하는 지역 감성력의 흥겨운 표현이며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한·인도네시아 관광산업의 미래



**김수일**  
·주한인도네시아관광촉진대표  
·부산외국대학교교수  
·전, 외교통상부대사

인도네시아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다양성에 있다. 2억 4천만의 인구 규모를 가진 세계 4위의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는 국토 면적 역시 약 190만 평방 킬로미터로서 한반도의 9배에 가깝게 광대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1만 7천여 개의 섬을 가지고 있다. 특히, 300여 종족이 살고 있고, 600여 개의 방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문화적 다양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종족마다 특이한 문화와 풍습, 언어, 종교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지역마다 기후와 자연환경이 차이가 있고, 자연경관의 모습이 다르다.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이러한 다양성들이 특별한 흥미거리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금만 숲 속으로 들어가도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성하고 울창한 열대 우

특정 테마를 갖고 해외여행을 한다. 이와 같이 테마 여행 추세가 확산될수록 다양한 테마여행이 가능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림, 서핑에 안성맞춤인 높은 파도에 눈 부신 백사장 등을 가진 아름다운 해변, 수 킬로의 거리까지 유행냄새와 연기를 뿜어내며, 경이로움을 과시하는 활화산, 바다로 착각할 정도로 광대한 호수들 등이 있다. 이들 다양한 환경에는 서식하는 식물과 동물의 종도 각기 다르고, 기후도 다르다. 현대의 관광객들은 특정한 자신들의 취미와 관심,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테마관광을 즐기는데, 특히, 이러한 추세는 소득이 높은 선진국 국민들에게 현저하다. 따라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테마 소재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외국관광객들에게 더없이 안성맞춤의 나라이다.

불과 일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해외 여행을 갈 때 철보다 양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해외 여행 관련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관심사는 몇 나라를 방문했느냐였다. 많은 나라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자랑거리였고, 방문한 나라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많이 있게 보았느냐는 뒷전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 나라 혹은 지역의 문화 유적이거나 자연경

관, 테마 여행을 즐기기 보다, 지식인 혹은 선지자로서 피상적 조건 갖추기 위한 차원이 컸기 때문에, 보통 수도를 방문하여 시내 한 복판에서 사진들을 찍고 오는 것이 유행이었다.

그러나, 지금 여행의 목적과 패턴은 크게 변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해외 여행 기회가 증가하면서, 양보다 질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즉 개성을 추구하는 여행이 증가했다. 산업의 패턴이 소득이 증가하고 개성이 강조되면서 대량 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변화했듯이, 여행 역시 취미와 개성, 소득 수준 등에 맞춰 소그룹 형태의 맞춤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를 중심으로 방문하면서 여행 증명 사진을 찍던 패턴에서 가족 혹은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특정 테마를 갖고 자기 최적의 장소를 찾아 여행을 한다. 매우 바빠 직한 여행패턴의 변화다. 여행이 삶

의 질 향상에 더욱 효율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해변 마을을 찾아 며칠간 머물며 수영도 하고 독서도 하고, 마사지도 하며 심신의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해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해안을 찾아 스쿠버 다이빙을 하거나, 울창한 열대 우림이 우거진 산을 찾아 트레킹을 하면서 열대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건강하고 신선한 산소를 마시며 건강을 다지기도 하고, 저렴하고 한적한 골프장을 찾아 며칠간 머물며 마음껏 라운딩에만 몰입(immersion)하기도 한다. 즉, 특정 테마를 갖고 해외여행을 한다. 이와 같이 테마 여행 추세가 확산될수록 다양한 테마여행이 가능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런 흐름을 반영하여, 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재정비에 착수했다. 2013년까지 관광자원을 각 테마 별로, 지역 별로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북수마트라에 위치한 토바 호수(Toba Lake), 자카르타의 Old Town과 Pulau Seribu, 중부 지방의 보르부르드 사원(Borobudur Temple) 등 전국적으로 16개의 대표적 관광지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

다. 개발의 내용은 관광 인프라, 즉 호텔, 쇼핑센터, 식당, 쇼핑품 등을 한 비하는 인 외에 인도네시아가 취약한 항공편 연결성 재고도 포함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발리, 자카르타, 바탐, 수라바야, 메단 등 5개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에서 탈피하여 신대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될 것이다. 이들 관광지들은 각각 해빈, 화산, 호수 등 뛰어난 풍경을 지닌 곳들, 즉 자연 생태 관광지(Nature & Ecotourism)은 물론,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유산을 지닌 문화 유적지(Culture & Heritage), 그리고 골프, 스쿠버 다이빙, 요트, 하이킹, 트레킹, 서핑 등 레저용 관광지(Recreational Tourism), 심파심 사이를 여행하는 크루즈(Cruise), 음식 및 쇼핑(Culinary & Shopping), 건강 및 웰빙 관광지(Health & Wellness), 그리고 MICE 관광지로서의 발전에 갈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정책은 인도네시아 각 지역의 관광 산업을 균형되게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관광산업이 큰 잠재력에 불구하고, 그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노력과 정책이 요구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무엇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활동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홍보와 마케팅 노력과 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 현재 일반 기업들의 경우도 홍보비와 마케팅 비용을 매출액 기준 3.5% 정도로 지출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민간 업체들도 연간 관광 수입에서 이 정도의 홍보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관광객들은 속성 상 절대 모르는 곳에는 가지 않기 때문이다. 남에게 얘기를 듣고 가거나, 신문, 잡지 등에서 기사를 읽고 가거나, 여행사의 추천을 받고, 혹은 텔레비전의 홍보 광고를 본 뒤,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판단하여 여행지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어떤 볼거리, 먹거리, 쇼핑할 곳, 휴식할 곳,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있는지 알라는 일, 즉 홍보하는 일을 가장 먼저 강화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Ministry of Tourism & Creative Economy)는 내년부터 홍보와 마케팅 예산을 증액하고, 각종 홍보 수단들, 즉 책자, 전단지, 신문, 잡지 등 인쇄 매체와 TV, Radio 등 공중파 매체를 통한 홍보를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사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는 경쟁국가인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비해 접근성(Accessibility)이 불리하다. 즉, 거리가 이들 국가들 보다 멀고, 따라서 항공료가 비싼다. 운항하는 항공편의 수 조차 부족하다. 특히, 한국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북부 생활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 생활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천 만 명 이상의 큰 시장인 남부 지역이지만, Jakarta나 Bali로 가는 항공편이 없어, 직항이 운항되고 있는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서울에서 가까운 인천에서는 Jakarta와 Bali를 운항하는 직항로가 있어, 남부 지역을 비해서 경쟁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덜 불리하지만, 여전히 경쟁

국가들에 비해 거리가 멀고 비행시간이 오래 걸리고 항공료가 비싼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요금의 작용을 유효하게 할 필요가 있다. Garuda의 경우, 연 평균으로 볼 때, 승객의 승선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동안 비수기에 조차 Discount에 인색했던 점을 전형적으로 시정하려 하고 있다. 최근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저가 항공사들은 비수기의 경우, 대폭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는 불가피하다. 관광 산업의 필수인프라인 동시에 여행의 필수수단인 항공기의 노선이 확대돼야 하는 것은 물론, 유효성있는 가격 정책이 관광경쟁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Garuda와 관광경제부의 상호 협력에 강화와 Team Spirit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민간 분야들, 즉 여행사, 호텔, 음식점, 쇼핑센터, 관광동력사, 언론, 관광학계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치 활동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관광 산업의 핵심 주체들인 정부, 호텔, 여행사, 항공사 등이 통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매력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서비스 수준을 공동으로 높이고, 마케팅과 홍보를 공동으로 행하면 인도네시아 관광의 경쟁력은 크게 시너지 효과를 얻어 강화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현재 약 1,250만 여명(2011년 기준)이 해외로 출국하지만, 올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한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 수치는 2,000여명에 불과하다. 여행업은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남유럽 재정적자 위기를 기점으로 체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불황이 어려운 도전요인이 되고 있지만, 한편도 한국 관광객의 인도네시아 방문 객 숫자가 이미 2012년 1월에 이르렀고, 이제 다각도의 노력과 정책이 참가되면 이 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본다.



# ‘강남스타일’의 성공을 보면서



이 경 규  
본지편집위원

그계 사이의 땅과 열정이고

그의 창조적 변신이며

이시대의 최고 광대가 보여주는  
포퓰리즘의 승리라고 보여 진다.

한때 미술계를 휘잡았던

팝 아트의 물결이

그러한 것처럼.....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 강남스타일은 원초적 본능이 잘게 베인 그 노랫말 보다 단순, 반복적인 재미가 넘쳐나는 그의 현명한 춤이 오히려 세계를 더 흥리고 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어디서나 흥에 겨워 춤을 추는 대중적인 이 춤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는 힘은 바로 그 춤이 가진 보편성 때문이라.

이 보편성이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세대를 거침없이 유혹하는 힘이 되고 있다. 이따금씩 T.V에 비취졌던 그의 무대를 보면 그는 다른 케이팝스타와는 달리 프로의 권위를 뽐내며 현란한 자기 춤에 몰입해 있는 모습과는 달리 청중과 함께 어울려 뛰노는 즉흥적인 공감과 존중이 늘 무대를 뜨겁게 달구곤 한다. 더불어 함께하는 축제는 보편성이 생명임을 그는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강남스타일은 해외진출을 위해 기획하고 만든 춤이 아니라 사이의 독특한 여러 춤

사위들이 정형화를 거부하는 우리 전통춤의 흥과 율동 되면서 우리 대중 속에서 먼저 열광을 받던 것이기에 더욱 값진 성취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강남스타일은 우리에게 세계화가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의 춤은 프로의 완성미가 돋보이는 결코 일류의 춤 사위가 아니다. 그의 춤은 정통의 일탈이며 단순 편안함, 친근감, 부드러움, 코믹한 재미가 있어 애써 배우지 않아도 아무나 따라 춤을 추 수 있을 것 같은 기막히게 대중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어떤 문화권 속에서도 쉽게 용해되고 흥동의 마력을 지니면서 세계에서 일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계 사이의 땅과 열정이고 그의 창조적 변신이며 이시대의 최고 광대가 보여주는 포퓰리즘의 승리라고 보여 진다. 한때 미술계를 휘잡았던 팝 아트의 물결이 그러한 것처럼.....

강남스타일이란 그 노래의 타이틀 또한 아이러니하다. 어찌 강북스타일이고 지방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 같은 어눌한 메리의 그 춤이 강남스타일이라니 흥분 답지 않게 생긴 그의 체형과 겹치면 지저분한 뒤편이 느껴진다.

한때 어떤 정치가가 유독 싫어했던 그 강남이라는 지역에 고착된 주류란 이미지가 이 춤사위와 함께 신명난 해방감을 풀어놓으면서 애써 강남의 벽을 만든 정치적 허상들을 본의든 아니든 유쾌하게 조롱하며 허물고 있다. 강남이 이 춤을 어떻게 수용하는가는 차치하고라도 이 춤이 갖는 역동적인 문화의 힘이 아니겠는가?

이렇듯 쉽고 재미나게 대중을 사로잡는 사이의 그 보편적 창의력에 박수를 보내다 문득 그 속에서 객객게 미려관광산업의 길을 엿보고 싶어지는 건 우매한 한 관광

인의 노욕인가  
보편성은 관광산업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통문화의 특수성을 잃지 않은 보편적 사회가 관광산업이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므로 관광산업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하는 일은 관광자를 개발하고 관광상품을 다양화하며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보다 세계적 보편가치를 수용하고 이 가치들이 사회 모든 부문에서 정서적 갈등이 없이 사이의 춤사위처럼 편안하게 스며들게 하는 일일 것이다. 무대만 웅장하고 화려하면 뭣하리?

각종 제도를 싸이가 관광을 바라보듯 관광객입장에서 바라보고 그의 춤처럼 유인하게 고치니가고 시정의 질서를 고르게 하여 외래 관광객이 축제의 도가니 속에서 꿈꾸게 하는 일이 창조적 변화가 아닐까.

관광은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이고 축제며 소통이 아닌가?

어찌 이 생명의 자유로운 비상에 거침없이 있을 수 있겠는가?

## 지친 영혼을 위해

## 홀로 이 가을속으로 떠나보자

### 약속

도 없으면서 1년만에 찾아온 이 가을, 높고 푸른 하늘이 희색빛 도시안에 그냥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가족, 직장, 친구고 뭐고 잠시 접어두고 홀로 나서 가을과 단둘이 데이트해보자.

가볍고 착용감 좋은 옷차림, 길기 편안한 신발은 기본이겠고 모자와 선크림, 가을을 전해주는 풍경을 찍을 카메라도 챙기고, 선글라스는 두고가야겠다. 검은 선글라스는 풍요로운 가을 빛 잔치를 못보잖아!

천천히 길게 그리고 느리게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길에 나서 보자. 먼동이 뜨기 전, 떠오르는 햇살과 하루의 시작을 함께해보자. 한적한 숲길을 찾아 갔다면 아침 햇살에 나무 잎사귀마다 일렁이는 생기도 느껴보고 그 빛의 찬연한 어우러짐도 살펴보자. 그때부터 진짜 가을과의 조우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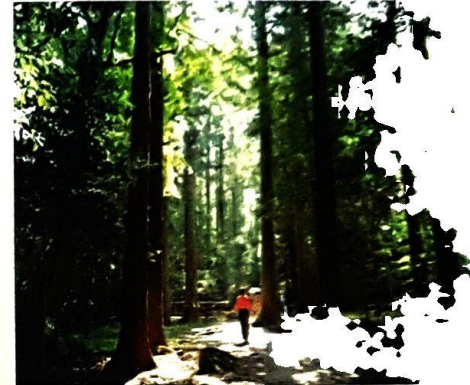
눈으로만 보려 하지 말고 남아 있는 다른 감각도 깨워 보자. 눈을 감고 산세들의 울음에, 벌레와 곤충들의 어슬렁거림에, 바람결에 맞닿아 울리는 바스락거림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다. 신발과 양말도 벗어 옆으로 치우고, 맨발로 흙과 잡풀들을 부드럽게 딛고 서서 온 가을이 나를 받아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여유를 두고 하루의 소임을 다한 태양이 저만치 기울어 가는 시간까지 함께해 보자. 홀로 떠난 가을맞이지만 외롭지 않았네

축감이 어떤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지 살펴보는 거야. '천천히' 바라보고 '깊게' 받아들이면서 '느리게' 다가서보자. 그 순간이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순간, 스치듯 한 번에 모든 것을 보려 하지 말고 느린 몸짓으로 서서히 가을과 하나가 돼 보는 거다.

가을이 나를 받아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여유를 두고 하루의 소임을 다한 태양이 저만치 기울어 가는 시간까지 함께해 보자. 홀로 떠난 가을맞이지만 외롭지 않았네.

어름의 혼잡함이 사라진 가을바다로 떠나는 것 역시 좋을 것 같네. 넓은 모래밭에 서서 자신의 오감을 일으켜 세워 가을을 온전히 느껴보자. 자신이 서 있는 곳과 하나님의 시간이라 무엇인지를, 벗이삭이 어떻게 변해가는 가을 들녘에는, 온갖 과일들이 풍요로운 자태를 뽐내는 언덕자락이든 쉼당대네. 자신에게 기쁨이나 슬픔으로 남아 있는 풍간을 찾아가 특별한 추억을 더듬어 보는 것도 좋단네.

나는 희색빛으로 채색된 비정한 도시에서 늘 외로움을 느껴왔단네.



인생은 고독과 허무를 간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래전 깨달았던네.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순간들이 스치고 지나간 후 필자 시간들을 뒤돌아 보게 해 주는 여행길, 새로이 맞이하고 다시금 헤어짐을 반복하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에 주

저하고 그렇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뒤돌아 보게 한다. 사람마다 흐르는 시간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이 주어진 삶을 어떤 때는 열정적으로 또 어떤 때는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에, 그 전부가 시간의 흐름속에서 서서히 변해가고

렇게 변해가는 시간속에서 멈추어 서버린 듯 주위의 소리를 풀어버리고 고요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여행은 일상의 삶에서 그 모든 순간들과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나는 가끔 그 소중함을 얻기 위해 고장남에서 벗어나 끝날 여행을 떠난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곧 자기답게 사는 것이다. 낯은 생각으로 부터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때문이다.

청량한 가을바람, 맑은 공기가 지친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하늘에게, 단과 별들에게, 나무에게, 그리고 고개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게 고아움을 전한다.

김봉오 btjbusan@hanmail.net



## 국내 명란 단일 제품 수출 1위 “(주)덕화푸드” 장석준 대표이사

● 장석준 대표이사는 1998년 명란 전문기업 (주)덕화푸드를 설립한 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명감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업 이익을 사회 환원과 지역사회 구성인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2001년 1월부터 소년동아일보백서어린이에 매월 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하라이온스클럽, (사)한국불교자원봉사회, 괴장동 주민자치위원회, 사하구청 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사회활동을 통해 소년소녀가장돕기, 독거노인과 지역 불우 시살에 쌀 보내기, 노숙자 무료급식 봉사 등을 하고 있으며, (사)한국불교자원봉사회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매주 수 목요일날 연간 20,000여명에게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명란맛것과 냉동명란을 일본에 200억원 이상 수출하여 외화 획득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꾸준한 고용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함은 물론 사하홍보회, 사하지역발

전협의회, 사하기업발전협의회 사하문화원 등에 지원 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여러 사회단체를 통한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2010년도부터 대표로 있는 (주)덕화푸드에서 자체적으로 장립겨우주민 중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여 2010년도에는 300여명, 2011년도에는 500여명에게 삼계탕을 제공하였고 올해에도 삼계탕 무료급식봉사를 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장대표이사께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한국불교자원봉사회에서 설립한 사회적기업 “희망드림”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희망드림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익을 노인무료급식운영비로 사회에 환원하는 형태로 일반 기업의 경제적 가치창출이 아닌 사회적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에 일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해식 편집위원



### 주요약력

- 1964. 2. 28 대구시 대구고등학교 졸업
- 1972. 2. 28 부산수산대학교(現 부경대) 졸업
- 1996. 2. 28 부경대학교 대학원 졸업
- 1993. 1. 20- 덕화유용주식회사 창업(부산), (주)덕화푸드 대표이사
- 2000. 5 부산의 특색식품 선정(부산광역시, 죽염 조미명란젓)
- 2001. 12 수산물 수출 주력기업 선정(해양수산부)
- 2003. 6 유망중소기업 선정(부산은행)
- 2003. 11 장석준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 수상(제40회 무역의 날)
- 2004. 11 1,000만불 수출탑 수상(제41회 무역의 날)
- 명란 단일품종 국내 최대 수출
- 2006. 11 공장증설이전 및 보세창고 신설(부산 정림동)
- 단일품종으로 국내 최신, 최대규모
- 2006. 12 부산명품수산물 선정(부산광역시 지정, 제2006-2호)
- 2007. 1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
- 2009. 4 일본 세븐일레븐 그룹 전국매장 독점 판매계약
- 2011. 3 제12회 농림수산물 수출탑 수상
- 2011. 4 수산물 브랜드 대전 금상 수상
- 2011. 9 (주)덕화푸드 대표이사 장석준 2011 대한민국 명장선정
- 2012. 10 부산시 시민상(봉사상)수상

**2011년 대한민국 명장  
(주)덕화푸드 대표이사 장석준의  
청주로 빛어낸 210억명란**

청주로 빛어낸 저염명란은  
4% 염도의 짜지않은 명란으로  
청주로 맛을 내, 비리지 않고,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덕화푸드 고객센터 051-265-8163 www.dhfood.kr





# 여행사 신뢰의 첫걸음 여행공제회로부터 시작합니다

- **공제지급보증** 항공, 철도, 여행도매업자, 선박 등 여행업관련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채무를 이행보증합니다.
- **공제영업보증** 영업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여행업을 운영하면 법령에 의거 등록이 취소됩니다.
- **공제계약보증** 여행계약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이행보증합니다.
- **공제회 협력업체**

여행도매업자 :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롯데관광개발, 롯데제이티비, 세종투어몰여행, 자유투어, 레드캠퍼, 오케이캐시백서비스(주)투어버스, 노랑풍선, 투어이천, 맥여행사, 한진관광, 포커스투어, 하나유스, 걸리버트래블어사시메이트, 신탄투어 등

항 공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철 도 : 한국철도공사

선 박 : 씨월드고속훼리, 한일고속, 대아고속해운, 위동해운, 큐슈여객철도, 한국고속해운, 크루즈홀리데이코리아 등

금강산·개성 : 현대아산

공제회는 여행사 친담 보증기관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보증서를 발급해드립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서울시 중구 대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대표전화 02-757-7491 팩스 02-757-7490

서울 02)757-7482	부산 05)1463-3111	대구 053)746-6407	인천 032)432-4590	광주 062)224-4486
대전 042)226-8413	울산 052)275-2412	경기 031)255-8424	강원 033)242-0089	경남 055)212-1345~6
충북 043)231-5563	충남 042)254-5465	전북 063)287-6292	전남 061)285-0833	경북 054)745-0750
제주 064)742-8861	KATA 02)752-8692			



HOTEL PHOENIX



대연회장



스위트룸



웨딩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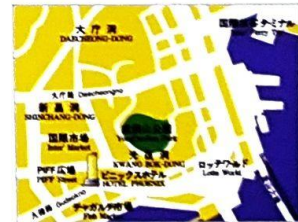


웨스턴스타일식당



피닉스호텔 BUSAN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5가 8-1번지  
Tel. 051)245-8061~9 Fax. 051)241-1523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는  
꿈이 있는 기업

고객선호 · 미래지향 · 사회기여

부산 ↔ 후쿠오카(하카타) DAILY SERVICE  
CARGO & PASSENGER



CONTAINER SERVICE

- BUSAN, BSN NEW PORT, HAKATA, HIROSHIMA, TOKUYAMA, NAKANOSEKI, MOJI, OITA, HIBIKI

PASSENGER SERVICE

- FUKUOKA (HAKATA)

 高麗 輪 船 株 式 會 社  
www.koreaferry.co.kr  
GENERAL AGENT FOR  
 Camellia Line Co., Ltd.

■ 본사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15-3 (국제여객터미널 1층)  
TEL : 1688-7447 FAX : (051)466-7162  
■ 서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8 (한진빌딩 16층)  
TEL : (02)775-2323 FAX : (02)775-8433